

번역·언어·기술

TransLinguaTech

2023년 2월

제4권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Dongguk University Translation Studies Research Institute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편집위원회 명단

(가나다순, 2023년)

편집위원장: 조 의 연(동국대)
편집위원: 김 대 영(충북대)
 마 승 혜(동국대)
 신 나 안(부산대)
 유 한 내(전남대)
 이 현 경(한국외대)
 최 경 희(평택대)
 최 진 실(계명대)
 한 미 애(동국대)
 홍 정 민(동국대)

Luiz Perez Gonzalez

(University of Agder)

편집이사: 마 승 혜(동국대)
 이 경 희(동국대)
 홍 정 민(동국대)
교 교: 배 유 진(동국대)

번역·언어·기술

TransLinguaTech

2023년 2월 제4권

목 차

- 희곡(play)번역에서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의 비교분석
/ 김가희 5
-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 전략 연구 / 유일범 17
- 번역사회학 시각에 기반한 대화통역장에서 통역사 이비투스
양상에 대한 연구 / 이민 43
- [기획논문] 프리에디팅의 이해 및 활용에 대한 소고
/ 서보현, 김순영 61
- 편집규정 75
- 원고 작성 및 투고 방법 81
- 논문 작성 양식 83
- 연구윤리규정 87

희곡(play)번역에서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의 비교분석 - 셰익스피어의 『햄릿』 을 중심으로

김 가 희
(인천대)

Kim, Gahee. A Comparative Study on Play Translation by Human and Machine Translation -A Case Study of The Tragedy of Hamlet, Prince of Denmark

In literary translation, a comparison and analysis of human translation and machine translation should not be the work of determining any superiority and inferiority of two translations. The reason is that it is of little significance to reveal what machine translation lacks compared to human translation.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human translation and machine translation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examine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nd to gauge the current translation potential of machine translating play text, a genre of literature. The targets of analysis are four human translation texts and one Papago translation text in which some of Hamlet, are translated.

- ▶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Bassnett, Play, Papago, translation.
- ▶ 키워드: 바스넷, 번역, 인공지능, 파파고, 희곡문학

1. 서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하나인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¹⁾이 자연

1) 본 연구에서 기계번역은 NMT(Neural Machine Translation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 번역)만을 의미한다.

스럽게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글로벌기업이지만 이미 검색 엔진으로 친숙한 구글과 컴퓨터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기업인 네이버 파파고와 카카오가 기계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지난 3월 기준, 월 1300만 명 수준으로 2019년 대비 사용자가 30% 이상 늘어났다(중앙일보, 2022. 05. 03)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계번역의 빠른 대중화와 달리, 문학번역에 기계번역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상빈(2016)은 문학번역이 창의적 글쓰기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기계번역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이현경(2018)은 언어유희가 포함된 유머번역의 경우 사례연구를 통해 기계번역의 부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토랄과 웨이(Toral & Way, 2018)는 문학번역에 특화된 기계번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량의 문학 텍스트로 학습시킴으로써 실험한 텍스트에 따라 17~34%의 번역이 인간번역 품질에 뒤지지 않음을 보였다. 김가희(2021)는 수필번역 사례를 통해 텍스트 외적 요건이 배제된다면, 번역의 주체가 인간 혹은 기계이건 간에 번역의 난제를 해결할 능력이 중요하다 보았다. 기계번역의 학습 능력과 그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문학번역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학번역의 한 영역인 희곡(play)번역과 관련하여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희곡 작품 텍스트에 관한 기계번역 관련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계번역에 관련한 연구들과는 그 차별성이 있다. 인간번역의 샘플²⁾은 본 연구자가 진행하는 문학번역 관련 수업에서 인간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텍스트 외적인 제약들을 소개 및 배제한 후 실시한 학생들의 극 대본 텍스트 번역 결과물이다. 기계번역 샘플은 동일한 텍스트를 네이버 파파고³⁾를 활용하여 얻었다. 이번 연구는 영문학과 관련하여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필번역 비교 및 분석에 이어 극 번역에서도 ‘기계번역이 인간번역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전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2) 서울 소재의 한 대학에서 문학번역의 인간번역 vs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번역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번역을 인간번역의 샘플로 사용하였다. 영어통번역을 전공하는 4학년 학생들의 번역 텍스트로 인간번역의 샘플로 사용할 정도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에 활용하였다.
 - 3) 한국에서 만들어져 한글 기반 번역 수준이 구글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어 파파고를 사용하였다.

2. 본론

2.1 희곡번역

희곡은 인간의 의지와 대립을 대화식으로 표현한 산문문학이다. 희곡을 무대에 올리면 연극이 되며 이를 위해 다른 문학 장르와 달리 희곡에는 3가지 요소⁴⁾가 존재한다. 따라서 희곡텍스트 번역은 일반 문학번역과 다르다. 이점에 대해 바스넷(Bassnet)은 다음과 같이 그 차이점을 설명한다.

Translating for the theatre is not like translating poetry or a novel; it is not and should not be solitary work. The collaborative nature of theatre means that ideally a translator should be engaged in the process, like the rest of the ensemble. (Bassnett, 2011, p100)

연극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희곡을 번역하는 것은 소설이나 시 번역과는 다르다. 연극의 협업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상연될 연극의 제작 과정에 번역가도 참여하여 번역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즉 희곡번역은 번역가 단독으로 하는 작업이 아니며 협업이 필요한 작업이다.⁵⁾

이는 번역가가 실질적으로 공연 제작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 가며 대사나 지시문 등을 번역하지 않을 경우 ‘performability(공연 실행가능성)’ 및 ‘speakability(대사로서의 적절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협업 없이 희곡텍스트에만 의존한 번역 결과물을 사용함을 밝히며 번역 분석 시 이로 인한 문제는 분석에서 배제한다.

연구에 사용된 희곡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다. 『햄릿』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 가장 긴 작품이며 영어로 된 문학 작품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전의 지위를 받고 있다. 셰익스피어 시대에도 『햄릿』은 그의 작품 중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공연되고 있다. 따라서 작품에 관한 다양한 참고문헌과 국내의 다수의 번역본이 존재하는 희곡으로 본 연구의 번역 텍

4) 희곡의 3요소는 첫째로 등장인물, 장소, 무대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 둘째로 대화, 독백, 방백의 형태로 된 대사, 셋째로는 인물 간 대화 사이에 인물의 심리, 동작, 표정을 설명하거나 조명, 효과음을 지시하는 지문이 있다.

5) 번역은 연구자의 것임.

트로 선정하였다.

2.2 번역 테스트 비교분석

번역할 텍스트 즉 원문 텍스트를 ST(Source Text)로, 학생들의 번역 텍스트(Translated Text)를 각각 TT1, TT2, TT3로 표기하였다. 비교 및 분석의 정교함을 더하기 위해 기존의 전문가 번역 텍스트(6)를 TT4로 정하고 포함 시켰으며, 마지막으로 기계번역의 텍스트를 TT5로 표기하였다.

분석 대상 작품인 『햄릿』의 경우 1921년 5월, 당시 최고의 잡지 ‘개벽’에 ‘햄릿’ 번역문이 연재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00년에 걸쳐 다수의 번역이 생산되었다. 시간의 간격에 따라 번역 텍스트를 분류하여 번역 관행의 흐름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 학생의 번역 텍스트와 전문가 번역 텍스트 그리고 기계번역 텍스트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번역 전략 및 번역가의 선택, 연극 대사 측면에서 발화성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채택한 사례는 세 개로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나 다음 세 개의 사례로도 그 차이점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사례 1>

ST : BERNARDO

'Tis now struck twelve; get thee to bed, Francisco.

FRANCISCO

For this relief much thanks: 'tis bitter cold,

And I am sick at heart.

TT1: 이제 자정이 되었어, 잠을 청하게나 프란시스코

고맙네, 날씨가 혹독하게 춥군, 심장까지 아플지경이야.

TT2: 버나르도 : 막 12시가 됐어. 가서 자게, 프란시스코.

프랜시스코 : 고맙네. 더럽게 추워서 뺏속까지 시리는군.

TT3: [버나도] 벌써 열두시구만, 어서가서 자게나, 프랜시스코.

[프랜시스코] 고맙구만. 너무 추워서 속까지 안좋아.

TT4: 버나도

6) 전문가 번역 텍스트로는 펄컨클래식코리아의 2010년판 『햄릿』에서 발췌하였으며 번역가는 노승희이다.

7) 오역 및 번역의 우열에 관한 논의는 배제한다.

막 12시를 쳤어. 자 프란시스코, 이제 자리 가게나.

프란시스코

고맙네. 끔찍이도 춥네(그러8). 마음까지 울적하군.

TT5: 베르나르도

이제 12시가 되었으니 자리 가거라, 프란시스코.

프란시스코

이 안도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서운 추위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아프다.

사례1은 1막 1장의 첫 부분으로 덴마크 엘시노어 성에 대포를 올려놓는 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프란시스코가 포상을 왔다 갔다 하며 근무하는 상황에서 베르나르도가 교대하러 와 나누는 대화이다.

첫째 대사와 인물명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TT4와 TT5는 ST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인물명을 위로 두고 대사를 그다음 줄에 두었다. 그러나 TT1의 경우 인물명의 표기를 생략하였고 TT2와 TT3은 표기에 차이를 보인다. 인물명의 경우 모두 음차하였지만 조금씩 다르게 음차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번역본이 생산되었던 관계로 학생들이 참조한 기존의 번역서가 서로 달랐음을 확인하였다. 인물명의 경우 발화 측면에서 기계번역의 음차를 선택하여 본 논문에서 표기한다.

둘째 모든 인간번역에서는 두 인물이 대등한 관계로 대사가 번역되었는데 기계번역에서는 인물 간의 지위 차이를 보였다. 셋째 프란시스코의 대사 번역에서 번역 주체에 따라 다른 번역선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TT1과 TT3의 경우 지극히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극심한 추위로 인해 ‘심장까지 아플지경이야’, ‘속까지 안좋아’라고 표현하였다고 밝혔다. TT2는 원문의 표현을 의미 전달에 초점을 두어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표현인 ‘뺨속까지 시리는군’으로 번역하였고 한다. TT4의 ‘마음까지 울적하군’도 ‘sick at heart’에서 추위로 인해 마음이 움츠러드는 본인의 경험에 의한 번역이라 유추할 수 있다. 기계번역인 TT5는 원문을 그대로 옮겼다. 4명의 인간번역에서 그 나름의 번역의 창의성을 볼 수 있으며 기계번역의 번역도 수용 가능한 정도라 하겠다.

넷째 프란시스코의 대사에서 ‘For this relief’가 4개의 인간번역 텍스트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기계번역에서만 ‘이 안도감에’로 번역되었다. 이는 무탈하게 근무를 마치고 교

8) 이 부분에 TT4는 미주를 달았다.

대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인데 모든 인간번역에서 누락 되었다는 것은 4명 모두 각자 참조한 기존의 번역본에서 누락을 확인하고 무의식적으로 누락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기계번역이 가장 성실한 번역 주체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TT4에서 ‘출네그려’에 미주를 달아 셰익스피어가 시간 설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1막 4장의 서두에서도 똑같이 추운 겨울밤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보여 준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공연을 위한 번역보다는 문학 작품으로써 희곡을 출판 번역한 것이라 하겠다.

<사례 2>

ST : HORATIO

Friends to this ground.

MARCELLUS

And liegemen to the Dane.

FRANCISCO

Give you good night.

MARCELLUS

O, farewell, honest soldier:

Who hath relieved you?

FRANCISCO

Bernardo has my place.

Give you good night.

TT1: 이 땅의 친구들이지.

그리고 데인의 부하들이다.

수고들 하거나.

수고했네 용사여.

누구와 교대했나?

베르나르도와 했네.

이만 가보겠네.

TT2: 호레이쇼 : 이 땅의 백성.

마셀러스 : 국왕의 신하.

프랜시스코 : 가보겠네.

마셀러스 : 어서 가게, 용사여. 누구와 교대했지?

프랜시스코 : 베르나르도와 교대했어, 수고하게. (퇴장)

TT3: [호레이쇼] 이 땅의 친구들.
[마셀러스] 그리고 국왕의 부하들.
[프랜시스코] 난 이만 물러갑니다.
[마셀러스] 잘 가시게, 누가 당신과 교대하지?
[프랜시스코] 버나도와 교대한다네. 그럼 수고하시게.

TT4: 호레이쇼
아군이다.
마셀러스
덴마크 왕의 충복들일세.
프랜시스코
그럼 근무 잘 하거나.
마셀러스
잘 가게, 충직한 친구. 누가 자네랑 교대했는가?
프랜시스코
버나도일세. 그럼, 잘들 있게.

TT5: 호레이쇼
이 땅의 친구들.
마르켈루스
그리고 데인의 부하들.
프랜시스코
안녕히 주무세요.
마르켈루스
O, 안녕, 정직한 군인:
누가 너를 안심시켰나?
프랜시스코
베르나르도가 내 자리야.
안녕히 주무세요.

사례 2의 상황은 사례 1에서 이어지는 상황으로 베르나르도와 같이 보초를 서게 될 두 명이 포상에 새로이 등장하면서 4명 중 세 명이 나누는 대화이다. 위 5개의 번역 텍스트를 통해서 각 번역 주체들이 직면한 번역의 고충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 『햄릿』의 배경은 12세기 덴마크 왕가이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셰익스

피어가 만들어 낸 르네상스 시대의 영국인이다. 이는 마르켈루스의 대사의 일부인 ‘the Dane’에서도 알 수 있으며, 등장인물은 16세기 작가가 공연을 염두에 두고 등장인물을 만들었기에 영국인이라 하겠다. 이러한 배경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호레이쇼와 마르켈루스의 대사와 같은 군대식 암호 번역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상대방이 신분을 밝히려는 요구에 ‘이 땅의 친구들’ 혹은 ‘이 땅의 백성’처럼 암호를 대고 그 암호에 답하는 암호에 ‘국왕의 신하’ ‘국왕의 부하’로 학생들은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였다. 현재와 동떨어진 시대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는 대신 과감히 현대 공연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현대식 암호를 만들에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ST에 충실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신념을 꺾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전문 번역가인 TT4는 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아군이 다’라고 상대방에게 현대식 암호가 아닌 일반적인 표현을 하였고, ‘덴마크 왕의 총복들 일세’로 원문의 ‘the Dane’을 저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 시대로 복귀한 것이다. 이에 반해 기계번역은 원문에 지극히 충실한 번역을 하였다.

둘째 근무를 마치고 교대 후 가려는 프란시스코의 대사 ‘Give you good night’는 TT1의 ‘수고들 하거나’, TT2의 ‘가보겠네’, TT3의 ‘난 이만 물러갑니다’, TT4의 ‘그럼 근무 잘 하거나’로 개성 있게 번역되었다. TT5는 ‘안녕히 주무세요’로 ‘good night’을 대사 상황에 맞지 않게 직역하였다. 사례 2의 마지막 부분에서 퇴장 전 프란시스코는 다시 한번 ‘good night’을 말하는 데 TT1은 ‘이만 가보겠네’ TT2 ‘수고하게’ TT3 ‘그럼 수고하시게’ TT4 ‘그럼 잘들 있게’로 인간번역은 모두 처음과는 다른 상황에 따른 다른 번역을 하였다. 기계번역의 경우 ‘안녕히 주무세요’로 번역한 것으로 보아 ‘잘 자라’는 인사말 외에는 파파고 시스템에 다른 의미의 입력이 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 선 안될 점은 AI가 학습하도록 다른 의미의 정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입력되지 않은 것이지 그 입력이 그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다면 인간번역과 유사한 번역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마르켈루스의 대사 ‘O, farewell, honest soldier: Who hath relieved you?’ 의 번역이다. 먼저 ‘farewell’은 TT1 ‘수고했네’ TT2 ‘어서가게’ TT3 ‘잘가시게’ TT4 ‘잘 가게’ TT5 ‘안녕’으로 수고한 동료들을 보내는 인사로 잘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도 두 번째 경우처럼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인사말 뒤에 온 호칭 ‘honest soldier’의 경우 TT3을 제외하고는 모두 번역하였다. 무대 위에서 대사가 진행될 때 관객은 등장인물들과 대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에 어색한 호칭은 생략하였다고 답했다. 즉 누락이 아닌 불필요한 것을 생략했다는 것이다. TT5에는 모든 인간번역이 생략(혹은 누

략)한 감탄사 ‘O’를 표기되어 있다. 사례1에 이어 사례2에서도 ST에 가장 충실⁹⁾하다 하겠다.

<사례 3>

ST : HORATIO

As thou art to thyself:
Such was the very armour he had on
When he the ambitious Norway combated;
So frown'd he once, when, in an angry parle,
He smote the sledded Polacks on the ice.
'Tis strange.

TT1: 동의하네.

갑옷을 착용하던 모습 그대로였네.
야망의 노르웨이 전투에서 착용했던거지.
쩡그린 그의 얼굴은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던 폴란드인을
세계 때릴 때 표정과 같았네
정말 이상하군.

TT2: 호레이쇼 : 똑같다 뿐인가. 선왕께서 야심 가득한 노르웨이
왕과 전투하셨을 때의 갑옷 그대로에다가, 미간을 찌푸린 표정은
썰매를 탄 폴란드 녀석들을 빙판 위에서 쳐부수던 바로 그 모습
아닌가. 해괴한 일이다.

TT3: [호레이쇼] 그래, 노르웨이와 한 판 붙었을 때 그가 입고 있던 그 갑옷 그
대로였지. 그가 빙판 위에서 썰매 탄 폴란드 병사들을 쳤을때 그 분노한
그 표정 그대로였고. 뭔가 이상해.

TT4: 호레이쇼

똑같았네. 선왕께서 그 야심만만한 노르웨이 왕과 싸웠을 때 입으셨던 바
로 그 갑옷 그대로더군. 그리고 그 쯡그린 얼굴도, 담판중에 진노하여 얼음
판 위에 기다란 도끼 자루를 내려치시던 그 모습이었어. 정말 기이하군.

TT5: 호레이쇼

당신은 스스로에게:

9) MNT의 가장 큰 단점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누락’이며 이에 관련한 국내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채택한 사례에 국한하여 언급한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야심에 찬 노르웨이가 싸웠을 때;
그래서 한번은 얼굴을 찡그린 적이 있어요, 화가 나서,
그는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탄 폴란드인들을 쳤다.
이상하다.

사례 3은 선왕의 유령을 보고 난 후 유령의 모습을 언급하는 호레이쇼의 대사다. 학생들이 번역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대사로 TT1~TT3의 번역 텍스트를 보면 공통으로 ‘in an angry parle’ 부분이 누락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타난 유령의 모습이 선왕이 야심 찬 노르웨이군과의 전투에서 회담이 결렬되어 인상을 찌푸리며 썰매 탄 폴란드 놈들을 얼음판에서 박살 냈을 때 모습과 같다는 내용이다. TT4만이 ‘담판 중에 진노하여’로 그 부분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TT4에는 ‘smote the sledded Polacks on the ice’가 ‘얼음판 위에 기다란 도끼 자루를 내리치시던’으로 번역되었다. 오역의 논란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원문의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지만, TT4의 번역 텍스트만 읽었을 때 가독성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능률하고 용감한 선왕의 모습이 보여 수용 가능한 번역이라 판단된다. 노르웨이 왕과 담판이 결렬되어 썰매를 탄 폴란드군을 공격했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번역가의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TT5 번역 텍스트에는 원문을 충실히 옮겼으나 인간번역보다 표현이 어색하였고 학생들 번역과 마찬가지로 같은 부분이 누락 되었다.

3. 결론

문학번역과 관련하여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의 비교 및 분석이 두 번역의 우열을 가리는 작업이 되면 안 된다. 인간번역보다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비교 및 분석하여 두 번역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기계번역이 문학의 한 장르인 희곡 텍스트를 번역하는 현시점의 번역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 먼저 공통점으로는 TT1부터 TT5까지 ST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다¹⁰⁾는 것이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사례1에서 인

10) 여기서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다’ 함은 번역의 창의성이나 맥락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수준이

간번역과 달리 베르나르도와 프란시스코 사이에 계급의 차이를 보이는 존대와 하대의 표현이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사례2에서 감탄사 ‘O’를 번역텍스트에 표기한 점이다. 셋째 학생번역과 보인 공통점으로 ‘in an angry parle’에서 parle을 담판 혹은 회담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점이다. 전문 번역가만이 이 부분을 살렸는데 이는 기계번역이 아직 공부 중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습 부족이 원인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가희, 조영래 (2021) 「수필번역에서 인간번역과 인공지능번역의 비교분석-바스넷의 『번역의 성찰』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인문학연구』 8: 51-70.
- 세익스피어 (노승희 옮김) (2010) 『햄릿』, 서울: 임프린트 펍킨 클래식 코리아.
- 이상빈 (2016) 「트랜스크리에이션, 기계번역, 번역교육의 미래」, 『통역과번역』 18(2): 129-152.
- 이현경 (2018)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들을 웃긴다? - 유머번역으로 본 MT번역의 현재 -」, 『ITRI학술대회 발표집』 183-194.
- Bassnett, S. (2011). Reflections on Translation. New York: Multilingual Matters.
- Toral, A., & Way, A. (2018). What level of quality can neural machine translation attain on literary text?. arXiv:1801.04962.

[인터넷 자료]

중앙일보 「생활 속으로 들어온 AI 통번역…바벨탑 이전 시대로 돌아가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9754>

번역 텍스트 햄릿 pdf

<https://www.w3.org/People/maxf/XSLideMaker/hamlet.pdf>

아니라 ST의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번역 · 언어 · 기술 제4권

김가희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시간강사

8676dku@naver.com

관심분야: 문학번역, 해석학, AI 번역

논문투고일: 2022년 12월 30일

심사완료일: 2023년 1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10일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 전략 연구*

- 『풍미인간 시즌 2』를 중심으로 -

유 일 범
(동국대-서울)

Liu, Yifan. A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Strategy of Chinese Food Names: Focusing on "Once Upon a Bite 2"

As cultural exchange between China and Korea continues to grow, Chinese food culture is becoming more popular in Korea. Academic research on Chinese food culture is also increasing. However, the existing analyses of the Korean translation strategy for adopting Chinese food names are mostly based on data from published books, and there are few studies or documentaries that explain this strategy. There are two research questions included in this paper: 1) What is the Korean translation strategy for Chinese food names in documentaries? 2)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translation strategies used in documentaries and books? In order to analyze the translation strategies used in documentaries to translate Chinese food names, "Once Upon a Bite 2" was selected as the main data, and two other documentaries and three books were selected as secondary data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documentaries tend to adopt foreignization translation strategies when translating Chinese food names into Korean, while books tend to adopt domestication translation strategies.

- ▶ Key Words: Chinese food names, translation, foreignization translation strategies, domestication translation strategies, culture-specific items
- ▶ 키워드: 중국 음식 명칭, 번역, 이국화 번역 전략, 자국화 번역 전략, 문화 특정 항목

* 이 논문은 저자의 2022년 석사학위 논문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 전략 연구-『풍미인간 시즌 2』를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서론

한국과 중국은 예로부터 가까운 이웃 국가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년간에 한국 드라마, K-POP, 예능 프로그램, 게임, 음식 등을 비롯한 한류¹⁾ 문화가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에서도 중국 영화, 드라마, 음식 등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중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일상생활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중국 음식에 관한 연구를 찾을 수 있다(이철원, 2005; 李海元, 2007). 음식 명칭의 번역이 음식의 특성과 그 내포되어 있는 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냐는 문화 전파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문화 교류와 문화 전파는 대부분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다큐멘터리는 전문성과 사실성을 결합해 문화를 가장 생동감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멀티미디어 매체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는 소설, 문학 작품, 출판 서적, 백과사전 등 텍스트에 집중되어 있고 (김혜림, 2012; 김미경, 2018; 이월, 2020; 김천향, 2021)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큐멘터리라는 독특한 특성 상 번역 전략이 서적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큐멘터리 텍스트에 초점을 맞춰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 전략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관련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시도이다. 특히 다큐멘터리 번역 전략의 특성을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관련 서적의 번역 전략과도 비교를 시도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설득력도 높이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 전략은 무엇인가?
- 2) 다큐멘터리와 서적 텍스트 사이에는 중국 음식 명칭에 대한 한국어 번역 전략에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그 양상은 어떠한가?

1) 두산백과에 따르면 한류는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해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21901&cid=40942&categoryId=31614>)

2. 이론적 배경

2.1 문화소 번역 전략

2.1.1 문화소 번역 전략

문화소 개념은 한센(D. Hansen, 1996)이 처음으로 제기하였는데 언어학의 음소와 유사한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문화소 개념을 김효중(2004)이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문화소는 ‘문화특정항목(culture-specific items)’(Aixelá, 1996), ‘문화관련어휘(culture-bound lexis)’(이근희, 2008), ‘문화관련 번역문제(culture-bound translation problem)’(Leppihalme, 1997), ‘실체소(realía)’(Reiss, 2000)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릴 수 있다(조재범, 2015, p. 11). 예를 들어 문화와 밀접한(culture-bound) 상관은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공동체에 있는 고유한 사회나 문화에서 생겨나는 특정한 어휘나 용어 습관으로 정의된다(이근희, 2003, p. 6). 이렇게 국내의 학자들의 문화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학자마다 문화소에 대한 이해에도 차이가 있다. 이런 정의를 종합해 보면 원어 문화권의 지역과 역사의 각인이 박힌 문화소는 그 문화권의 모든 사물과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소는 원천 문화권에서 나타나지만 목표 문화권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의미로 표현될 수 있기에 문화소는 소통과 번역에 있어서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소라는 개념을 단순히 한 마디로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은 이근희(2003) 문화소의 여섯 가지 범주에서 ‘특정 문화와 관련된 어휘’ 범주 중 ‘식’에 속하며 ‘문화 특수어군’ 범주 중 ‘음식’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근희(2003)는 특정 문화와 관련된 어휘 문화소의 범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번역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원천 언어권의 특정한 문화와 결합하여 목표 언어권에 등가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번역자는 원천 어휘의 발음을 그대로 음역할 수 있고 이때 독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음역 내용에 대해 부가설명을 추가하거나 괄호를 열고 주석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원천 어휘에 대응되는 목표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의미 전달을 잘하기 위해 그 표현이 목표 언어권의 어휘 사용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원천 언어권에서 발달된 어휘 범주에 속하는 어휘의 경우, 목표 언어권에 존재하지 않고 세분화로 인해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상위어로 일반화(generalization)하여 번역할 수 있다.

2.1.2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 전략

한국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도 ‘民以食爲天(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여긴다)’이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음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음식은 음과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이란 차와 술 등 마시는 음료를 가리키며 식이란 다양한 중국 요리와 간식, 딤섬 등을 가리킨다. 중국 음식은 중국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李海元, 2007, pp. 335, 360).

중국 음식명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에 등가어가 있는 경우 직역을 사용하고 등가어가 없는 경우 음역, 목표 문화표현으로 풀어쓰기 등 다양한 번역 방법을 사용한다(강수정, 2010; 금지아, 2015). 이러한 번역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음역이다(김미경, 2018; 이월, 2020; 채비, 2020). 다시 말해, 중국 음식명에 대해서는 한자어 음역, 중국어 음역, 혹은 한자어 음역과 중국어 음역이 혼합된 번역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2.2 이국화와 자국화 전략

2.2.1 이국화와 자국화 전략

독일 번역이론가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는 이국화와 자국화 개념의 이해를 위한 적절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면서, 그의 질문은 번역자가 ‘서로 완전히 분리된’ 외국 텍스트 저자와 번역 텍스트 독자를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에 있었다(Lefevere, 1977: Choi, 2016에서 재인용).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독자를 원작자에게로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원작자를 독자로 이끌 것인가’이다(Schleiermacher 1813/2004: Choi, 2016에서 재인용). ‘독자를 원작자에게로 데려’가는 번역 방법은 쉐라이어마허가 ‘귀화 번역(naturalizing translation)’으로 칭하고 ‘원작자를 독자로 이끄는 것’은 ‘이화 번역(alienating translation)’으로 불렀다.

이어서 베누티(1995)는 『번역가의 비가시성(The Translator’s Invisibility)』에서 위에 양분화된 방법을 ‘이국화(foreignization)’와 ‘자국화(domestication)’로 정의한다. 이 책에서 베누티의 자국화와 이국화에 대한 개념은 현대 영미 문화에서의 번역에 대한 관찰에서 비롯된다. 영미권에서는 오랫동안 유창한 번역이 잘된 번역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유창한 번역은 외국 텍스트의 언어와 문화적 특징은 없앤 채 번역본이 외국 작가의 의도와 외국 텍스트의 중요한 의미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은 착각을 줄 수 있다. 번역가의 ‘비가시성(invisibility)’은 번역자가 자신의 가시성을 낮추고 독자와 자연스럽게 커뮤니

니케이션하는 것이다(Venuti, 1995, p. 1). 번역자는 자신의 작품을 눈에 띄지 않게, 즉 ‘투명하게(invisible)’ 만든다. 『번역가의 비가시성』의 목표는 현재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국화 번역 방법에 도전하고, 이국화 번역 방법을 제창하자는 것이다. 이 책의 최종 목적은 독자들이 번역 속의 민족 중심주의적 폭력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번역본을 쓰고 읽을 때 외국 텍스트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Venuti, 1995, pp. 39, 41, 42). 이렇게 보면 베누티는 자국화 번역이 자기 민족 중심으로 타인의 언어와 문화적 특징을 무시하는 폭력 행위라는 것을 비판하며 이국화 번역 전략을 더 강조하였다.

본고는 이국화와 자국화를 사용하여 주된 데이터 다큐멘터리 텍스트에 등장하는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 다큐멘터리 텍스트의 이국화와 자국화 번역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2.2.2 중국 음식명의 이국화와 자국화 번역 연구

중국 음식명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한자어 음역, 즉 자국화 번역 전략이 주로 사용된다는 연구도 많지만(이월, 2019; 김천향, 2021) 중국어 음역, 즉 이국화 번역 전략이 선택된다는 연구도 상당수 존재한다(嚴翼相, 2009; 강수정, 2010; 채비, 2020).

자국화 혹은 이국화 전략은 번역 내용, 출판사의 요구, 번역자 개인의 선호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자국화 번역 전략을 고찰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혜림(2012)은 한중 간 음식명의 번역 양태를 비교하여 고유명사에 대한 중한 번역 방법을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것,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중국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중국 음식명의 번역 양태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음식 잘 먹고 잘 사는 법(2004)』, 『요리의 향연(2005)』, 『중국 음식 문화사(2006)』를 대상으로 살펴보았고 그 결과 중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 양태는 주로 의역(음역), 음역(한자, 한자음: 음식 설명, 한자음(한자) 등의 세 가지 있으며 자국화 규범이 작동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월(2020)은 중국 외문출판사에 출판한 『大中國上下五千年-中國飲食文化』 백과사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국의 통과례를 중국 명절과 인생 의례 두 가지로 나누었다. 분석 대상에서 나오는 음식 명칭의 번역 사례를 등가어 유무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부등가적인 음식 명칭은 실제적 부등성, 형식적 부등성 그리고 의미적 부등성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 음식의 한국어 번역에서 기본적으로 음역의 방식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면 음식명 번역 시 음역 혹은 음역에 부가설명을 덧붙인 방식으로 이국화 번역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판단된다(김천향, 2021, pp. 30-31).

한국에 없는 독특한 중국 음식을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상물이다. 채비(2020)는 영상물은 문화 전달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학계에서도 영상번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음식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풍미인간』에 나오는 음식명과 조리법에 대한 등가어가 있는 경우와 등가어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하는 번역 전략을 분석하였다. 등가어가 있는 경우 직역을 사용했으며 등가어가 없는 경우, 음역, 첨가, 의역을 사용했다. 그 중에 등가어가 없는 경우, 음역법 즉 중국어 음역(예: 大煮干絲→다주간쓰)을 제일 많이 사용했다. 중국어 음역은 한어병음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옮기는 번역 방법이므로 자국화 번역 전략이 아닌 이국화 번역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국화와 이국화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는 중국 음식 명칭에 대해 아직 통일된 번역 기준이 없고 번역자마다 번역 경향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중국 음식 명칭은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하나의 번역 전략만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김미경(2018)은 한자어 음역과 중국어 음역이 병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 음식을 소개하는 책 『중화요리에 담긴 중국』과 『중국 음식 문화사』 두 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문화소에 관련된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1. 간단한 표현 또는 풀이(한자), 2. 한국식 한자 발음(한자), 3. 한국식 한자 발음(한자: 풀이), 4. 중국어 한어병음발음(한자), 5. 중국어 한어병음발음(한자: 풀이), 6. 중국어 한어병음발음(한자: 한국어 대체어휘), 7. 중국어 한어병음발음(한자: 설명 추가) 등 일곱 가지 번역 양상으로 분류하였다. 김미경(2018)은 2번과 4번의 번역 방법이 한자어 음역과 중국어 음역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중국 음식명에 대한 한글 번역 전략 가운데 특히 직역, 의역, 한자어 음역, 중국어 음역, 한자어 음역과 중국어 음역을 융합한 방법, 부가설명 추가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역의 경우에도 한자어 음역, 중국어 음역, 또는 융합된 음역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된다. 이런 번역 전략이 본 연구에서 자국화, 이국화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자국화와 이국화 관점에서 본 선행연구 번역 전략

자국화	직역
	의역
	한국어 음역
이국화	중국어 음역
	한자어 음역+중국어 음역

이렇게 다양한 전략이 나타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텍스트의 차이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번역 전략들을 기반으로 다큐멘터리에서는 중국 음식명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이러한 번역 양상은 서적과는 다른지,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3.1.1 주요 데이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풍미인간 시즌 2』²⁾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풍미인간 시즌2』는 유명한 중국 음식 다큐멘터리 『혀 끝으로 만나는 중국 시즌 1』의 총감독 천샤오칭이 그려낸 또 하나의 명품 미식 다큐멘터리이다. 세계인들의 눈을 통해 중국 음식의 독특함을 고찰하고, 역사의 변천 속에서 중국 음식의 전파와 변화를 탐구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주제별로 모두 8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고에서는 1~6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서 다큐멘터리 『풍미인간 시즌2』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 전략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출판 서적 등으로 이뤄졌고 현실 세계와 긴밀

2) 『풍미인간 시즌 2』는 2020년 4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일요일 21시 20분 중국 텐센트 비디오(腾讯视频)에서 방송되었으며 중국 저장위성 TV(浙江卫视)에서 동시 방송되었다. 2020년 10월에는 한국 중화 TV에서 방영되었다.

하게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큐멘터리 번역은 영상번역의 한 장르로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해설 언어와 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문자 언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어체 번역과 체계가 다르다(박향숙, 2011, pp. 34). 따라서 다큐멘터리 번역만의 특징과 서적 번역과의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큐멘터리 『풍미인간 시즌 2』는 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제작되어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지 않았다는 희소성이 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

3.1.2 비교 데이터

3.1.2.1 다큐멘터리

본고는 주 데이터 외에 다큐멘터리 텍스트와 서적 텍스트를 부차 데이터로 사용했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주 데이터 『풍미인간 시즌 2』와 같은 텍스트 유형인 다큐멘터리를 몇 편 더 추가로 살펴볼 것이다. 그 이유는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다큐멘터리를 몇 편 더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 시즌1』³⁾과 『인사이트 아시아 - 누들로드』⁴⁾ 다큐멘터리 두 편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 두 다큐멘터리를 선정한 이유는 우선 주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중국 음식 명칭의 한글 번역 양상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다큐멘터리는 모두 미식 명품 다큐멘터리이고 시청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동영상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에서 나타나는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 전략과 관련해 주 데이터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3) 『혀 끝으로 만나는 중국 시즌 1』은 2012년 5월 14일 밤 21시 중국 CCTV1 ‘매력기록’에서 첫 방송되어 2012년 5월 22일 종영되었으며 2012년 한국 중화 TV에서 방영되었다.

4) 『인사이트 아시아 - 누들로드』는 2008년 12월 7일부터 2009년 3월 29일까지 한국 KBS1에서 방송되었다.

3.1.2.2 서적

아울러, 『풍미인간 시즌 2』와는 다른 유형의 텍스트인 서적 텍스트를 검토하여 이 두 유형의 텍스트 간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에 차이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다큐멘터리의 중국 음식 명칭에 대한 한국어 번역 전략에서는 서적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 데이터와 서적 텍스트를 비교하기 위해 중국 음식 문화를 묘사하여 소개한 책 『중국 음식 문화사』, 『중화 요리에 담긴 중국』, 『중화미각』 등 총 세 권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텍스트를 선정한 이유는 우선 주 데이터인 다큐멘터리와 서적 텍스트에서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에 사용되는 번역 전략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이다. 또한, 이들 서적 텍스트는 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대표적 텍스트로서 서적 텍스트에서 선택되는 음식명 번역 전략의 공통점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다큐멘터리 텍스트에서 찾은 공통점과 비교함으로써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3.2 연구 방법

중국 음식 명칭의 한글 번역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번역자마다 선호하는 번역 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사용되는 번역 방법은 음역이다(강수정, 2010; 채비, 2020; 김혜림, 2012; 김미경, 2018). 물론, 음역 외에 다른 번역 전략도 있다. 따라서 본고는 앞서 언급한 4건의 연구에서 채택된 연구 방법에서 공통점을 찾고 다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방법을 추가하여 본고의 목적에 맞는 분석 틀을 설계했다. 즉, 등가어 유무의 방법을 통해 연구 대상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분석 틀 설계 과정과 분석 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수정(2010)은 문화소의 부등성은 실제적 부등성, 형식적 부등성, 의미적 부등성, 한자사용 부등성 네 가지로 분류하여 그중에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중국 문화나 단어는 실제적 부등성으로 속하여 ‘이국화(한자어)’와 ‘이국화(음역)’ 번역 방법을 선택하였다.

〈표 2〉 실제적 부등성의 번역 전략 요약

부등성	내용	어휘 형태	번역방법
실제적 부등성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중국 문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중국 단어	고유명사	이국화(한자어) 이국화(음역)

그러나 강수정(2010) 외에도 많은 학자가 수행한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 방법에 관한 연구를 찾을 수 있다. 채비(2020)에서는 다큐멘터리 『풍미인간』 중 나온 음식명 번역 방법을 조사한 결과 ‘중국어 음역’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번역 방법으로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역’은 36.9%를 차지하여 두 번째 많이 사용하는 번역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의역’과 ‘첨가’ 이 두 가지 번역 방법도 사용되고 있지만,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중국 음식명의 번역 방법 통계

채비(2020) 데이터: 『풍미인간』		
번역 전략	개수	비율
중국어 음역	28	43.1%
직역	24	36.9%
의역	8	12.3%
첨가	5	7.7%
합계	65	100%

본고에서는 다큐멘터리에 나온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 방법에 대해 분석한 후에 서적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번역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혜림(2012)은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 방법은 ‘의역(중국어 음역)’, ‘중국어 음역(한자, 한자음: 음식 설명)’ 그리고 ‘한자음(한자)’ 등 모두 세 가지가 있으며 김미경(2018)은 번역 양상을 일곱 가지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중한 간 음식명 번역 양태 비교

김혜림(2012) 데이터: 중국 음식 소개한 책자들(2004-2006)	
번역 전략	
중→한:	한→중:
의역(중국어 음역)	의역+영문 표기
중국어 음역(한자, 한자음: 음식 설명)	
한자음(한자)	
두 가지 규범	
1) 중→한, 한→중 양방향 모두 자국화 규범이 작동한다. 2) 역자의 주관성이 중요한 규범으로 작용한다.	

<표 5> 중국 음식명의 한국어 번역 방법

김미경(2018) 데이터: 출판 서적	
번역 양상 분류	
1. 간단한 표현 또는 풀이(한자)	
2. 한국식 한자 발음(한자)	
3. 한국식 한자 발음(한자:풀이)	
4. 중국어 한어병음발음(한자)	
5. 중국어 한어병음발음(한자:풀이)	
6. 중국어 한어병음발음(한자:한국어 대체어휘)	
7. 중국어 한어병음발음(한자):설명 추가	
조사 결과	
1. 한국식 한자 표기와 중국어 병음 발음: 많은 응답자가 한국식 한자 표기를 선호했다.	2. 설명 추가: 간단한 설명 방법을 가장 선호했다.
필자 평가: 한국식 한자 발음(한자)과 중국어 한어병음발음(한자) 두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학자 4명의 연구를 살펴보면 ‘의역’, ‘한자어 음역’, ‘중국어 음역’, ‘음역+설명 추가’ 등 몇 가지 번역 방법을 사용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학자 네 명 연구 방법 요약

강수정(2010)	이국화(한자어 음역)
	이국화(중국어 음역)
채비(2020)	중국어 음역
	의역
김혜림(2012)	의역(중국어 음역)
	중국어 음역(한자, 한자음: 음식 설명)
	한자음(한자)
김미경(2018)	한국식 한자 발음(한자)
	중국어 한어병음발음(한자)
	중국어 한어병음발음(한자): 설명 추가

상기 요약한 연구 방법 간의 공통점을 본 연구 분석 틀의 출발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위 학자들의 데이터는 본 연구 데이터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은 데이터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본고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은 ‘의역’, ‘한자어 음역’, ‘중국어 음역’ 외에 ‘직역’, ‘한자어 음역+설명’, ‘중국어 음역+설명’, ‘한자어 음역+중국어 음역’, ‘중국어 음역+직역’ 등 번역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수정된 틀을 연구 방법으로 등가어 유무 상황을 통해 본고의 연구 대상을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설명할 것이다. 연구 방법 중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7〉 연구 방법에 관한 용어 정리 및 설명

연구 방법	설명	예시
직역	원천 어휘가 목표 어휘에서 대응어가 있는 경우 대응어를 사용	雞肉餃子-닭고기 만두 蕎麥面-막국수
한자어 음역	원천 텍스트에 등장하는 음식 명칭을 한국어에 있는 한자어의 발음 방식으로 바꿈	豆瓣醬-두반장 東坡肉-동파육
중국어 음역	원천 어휘의 원래 발음을 한글을 그대로 옮긴 경우	糟貨-짜오취 糰粍-참과
설명	원천 텍스트에 나오는 음식 명칭을 ‘한자어 음역’ 혹은 ‘중국어 음역’의 방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때 목표 독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음역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추가하는 방법은 ‘한자어 음역+설명’ 혹은 ‘중국어 음역+설명’으로 정의	叉燒肉-차소육(돼지갈비구이) 翡翠燒麥-페이추이샤오마이(채소 샤오마이)
의역	원천 텍스트에 나오는 음식 명칭의 글자 뜻을 목표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	胡虜之食-호식 즉 오랑캐 음식 壽桃-복숭아 모양의 케이크인 수도
기타	위에 서술한 용어 정의를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합쳐서 사용하는 방식. ‘한자어 음역+중국어 음역’, ‘중국어 음역+직역’ 등	花色點心-화색덴신 火腿炒飯-휘투이볶음밥

4. 데이터 분석 및 토론

4.1 데이터 분석

4.1.1 다큐멘터리 『풍미인간 시즌 2』에 대한 분석

등가어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텍스트에 등장하는 중국 음식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고 한국 사람이 전혀 모르는 경우(예: 翡翠燒麥-페이추이샤오마이(채소 샤오마

이), 糰粿·참과) ‘중국어 음역+설명’ 혹은 ‘중국어 음역’을 사용하고, 한국에 있는 음식과 비슷한 제조 방법으로 만든 음식의 경우(예: 豆瓣醬·두반장)는 ‘한자어 음역’이 사용되었다. 즉, 등가어가 없는 경우 ‘중국어 음역+설명’, ‘중국어 음역’, ‘한자어 음역’이 선택되었다. 한국에 있는 음식 혹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지만 비슷한 음식(예: 小磨香油·참기름)의 경우, 즉 등가어가 있는 경우에는 ‘직역’이 사용되었다. ‘중국어 음역+설명’과 ‘중국어 음역’ 두 가지 번역 전략은 이국화 번역 전략인데, 두 방법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과 예시를 보면 『풍미인간 시즌 2』는 이국화 번역 전략을 주로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는 다음 표와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표 8> 『풍미인간 시즌 2』에서 사용하는 번역 전략 정리

번역 전략	개수	비율
중국어 음역+설명	73	82.9%
중국어 음역	8	9.1%
직역	5	5.7%
한자어 음역	2	2.3%
합계	88	100%

4.1.1.1 중국어 음역+설명

ST 1: 魚香肉絲

TT: 위상러우쓰(돼지고기 어향 소스 볶음)

위상러우쓰는 중국 쓰촨성(四川省)의 특색 있는 볶음 요리이다. ‘위상’은 ‘어향’의 뜻이고 중국 쓰촨성 생선을 요리할 때 넣는 대파, 생강, 마늘, 절인 고추, 간장 등 재료의 조합으로 생긴 독특한 향기라는 말이다. 위상러우쓰는 돼지고기를 한국 잡채용 돼지고기처럼 잘라 대파, 생강, 마늘, 절인 고추, 간장 등 재료를 넣어 같이 볶은 요리이다. TT에서 나온 설명은 이 요리에 사용된 음식 재료와 요리 방법을 제시한다.

ST 2: 翡翠燒麥

TT: 페이추이사오마이(채소 샤오마이)

페이추이사오마이는 중국 양저우(揚州)의 특색 있는 간식이다. ‘첸청유가오’와 ‘페이추이사오마이’와 함께 양저우 양대 덤섬으로 꼽힌다. 최근에 한국의 중국 식당이나 마트에서는 ‘샤오마이’라는 중국 덤섬이 흔히 볼 수 있다. 여기 ‘페이추이’라는 뜻은 돼지고기 대신 채소가 들어간 음식 재료이다. 중국어로 음역한 후에 ‘채소 샤오마이’ 뒤로 덧붙여 설명을 추가한다.

ST 3: 涮羊肉

TT:涮양러우(양고기 휘귀)

涮양러우, 일명 ‘양고기 전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에도 전골이 있지만 중국 전골과 차이가 있다. 전골은 중국어로 ‘휘귀’라고 부른다. 이제 한국에도 중국 휘귀 식당이 많이 생겼는데 주로 뷔페와 무한 리필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고기 휘귀에 비해涮양러우를 아는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아서 괄호 안에 ‘양고기 휘귀’와 같은 설명을 추가한다.

ST 4: 蟹粉小籠包

TT: 세편샤오룽바오(게살 샤오룽바오)

세편샤오룽바오는 상해의 유명한 간식이고 저장 일대에서 인기가 많은 전통 음식이기도 하다. 보통 한국에 있는 중국 식당 혹은 편의점에서 파는 샤오룽바오는 돼지고기를 위주로 한 것이다. 여기서 ‘세편’은 게살이라는 뜻으로, 샤오룽바오 안에 돼지고기와 함께 게살이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추가하면 한국 시청자들이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ST 5: 麻婆豆腐

TT: 마포더우푸(마파두부)

마포더우푸는 중국 쓰촨성(四川省)의 유명한 전통 요리 중 하나로 중국 8대 요리 쓰촨요리에 속한다. 이 요리 창시자의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녀를 ‘진마

파'라고 불렀다고 해서 마파두부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보통 '마포더우푸'보다 '마파두부'로 많이 불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중국 요리 중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괄호 안에 '마파두부'라는 말을 추가하여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ST 6: 軟炸扳指

TT: 환자판즈(대창 튀김)

'판즈'는 각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전에는 '활을 쏠 때에 시위를 잡아당기기 위하여 엄지손가락의 아랫마디에 끼는 빨로 만든 기구'라는 의미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판즈'는 식재료 돼지 대창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음식의 요리 방법은 돼지 대창을 기름에 튀기는 것이다. 한국 사람도 곱창을 좋아하므로 '환자판즈' 요리 뒤에 설명을 덧붙여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4.1.1.2 중국어 음역

ST 7: 糟貨

TT: 짜오휘

짜오휘의 역사는 유구하며 중화 음식 중 오래 전부터 사용해오던 이름이다. '짜오'는 중국 강남 지구의 술지게미로 냉채를 만드는 방법이고, '휘'는 식재료의 포괄적 명칭으로, 술지게미로 만든 음식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 술지게미로 만든 음식과 요리 방법은 중국만의 독특한 것이고 중국어 발음으로 번역하는 방법은 중국어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시청자에게 이국적 느낌을 줄 수 있다.

ST 8: 糌粑

TT: 참파

참파는 티베트 자치구의 특색 있는 음식이자 티베트족 목축민의 전통 주식 중의 하나이다. '참파'는 '밀가루 볶음'의 티베트어로 쌀보리로 만든 밀가루이며, 먹을 때는 약

간의 쇼트티, 젓비지, 설탕 등을 잘 섞어 손으로 뭉치면 된다. 한국에는 참과와 비슷한 음식이 없으므로 중국 티베트족 목축민의 전통 음식을 한국 시청자에게 알리기 위해 중국어 발음 그대로 음역했다.

4.1.1.3 직역

ST 9: 雞肉餃子

TT: 닭고기 만두

만두는 한족의 전통 분식이자 중국 북쪽 사람들의 주식이며 설날 먹는 음식이다. 한국에서도 물만두, 군만두, 튀김만두, 찢만두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주로 김치, 부추, 돼지고기, 갈비 등으로 만든다. ST의 닭고기 만두는 주로 닭고기와 채소로 만든 물만두를 가리킨다. 양국은 모두 만두를 먹는 나라이므로 직역으로 번역했다.

ST 10: 小磨香油

TT: 참기름

중국에서 참기름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한국과 중국은 음식 방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어 양국 국민 모두 참기름을 즐겨 먹는다. 따라서 TT에서는 바로 참기름으로 직역하였다.

4.1.1.4 한자어 음역

ST 11: 豆瓣醬

TT: 두반장

두반장은 발효 적갈색 조미료로 누에콩, 대두 등이 주재료이고 부재료로는 고추, 참기름, 소금 등이 있다. 한국에서도 중국 요리 전문 중국 요리 식당에서 두반장이 많이 활용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된 데이터에서 ‘중국어 음역+설명’ 번역 전략이 압도적인 비율

을 차지하는데 ‘중국어 음역’이 이 텍스트만의 특징인지 혹은 다른 다큐멘터리에서도 찾을 수 있는 특징인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앞의 연구 목적에서 제시한 1번 질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다큐멘터리 한 편만 분석하는 것으로는 설득력이 매우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설득력 있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다큐멘터리를 모아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1.2 비교 텍스트에 대한 분석

4.1.2.1 비교 대상 다큐멘터리 텍스트에 대한 분석

『혀 끝으로 만나는 중국 시즌1』에서 사용하는 번역 전략은 ‘중국어 음역+설명’이 제일 많고 전체 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 많이 쓴 번역 전략은 ‘중국어 음역’이고 전체 비율의 30% 정도를 차지하였다. 물론 ‘직역’(8%)과 ‘중국어 음역+직역’(1.6%)도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번역 전략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치를 보면 『혀 끝으로 만나는 중국 시즌1』은 ‘중국어 음역+설명’의 번역 전략을 위주로 선택함으로써 이국화 번역 방법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혀 끝으로 만나는 중국 시즌1』과 주 연구데이터 『풍미인간 시즌 2』 모두 다큐멘터리이고 이국화 번역 방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양상이 다큐멘터리의 특징인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중국 음식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다큐멘터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사이트 아시아 - 누들로드』에 나오는 중국 음식명은 한글 번역에 사용한 번역 전략은 ‘중국어 음역’이고 ‘직역’이 각각 3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한자어 음역’은 두 번째 높은 비율을 보였다(17.9%). ‘의역’은 5.1%로 앞선 번역 방법에 비해 낮았다. 가장 자주 사용된 ‘중국어 음역’과 ‘직역’ 각각 이국화와 자국화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큐멘터리 『인사이트 아시아 - 누들로드』는 위에 살펴본 두 다큐멘터리와 같이 이국화 번역 전략을 적용하지만, 자국화 번역 전략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 데이터 『풍미인간 시즌 2』와 비교 데이터 『혀 끝으로 만나는 중국 시즌1』, 『인사이트 아시아 - 누들로드』 등 다큐멘터리 총 세 편을 분석 및 비교한 결과, 본고의 1번 연구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즉,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에서는 주로 이국화 번역 전략이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울러, 2번 연구 질문 ‘다큐멘터리와 서적 텍스트 사이에는 중국 음식 명칭에 대한 한국어 번역 전략에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그 양상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서적 텍스트에 대한 분석도 실시했다.

4.1.2.2 비교 대상 서적 텍스트에 대한 분석

다큐멘터리 텍스트 분석 결과와 서적 텍스트에서도 유사하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학자가 연구했던 서적 데이터 『중국 음식 문화사』, 『중화 요리에 담긴 중국』, 『중화미각』 등 세 편의 중국 음식 명칭 번역을 분석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 정리하고 사용한 『중국 음식 문화사』에서 나온 중국 음식명은 총 151개로, 그중에 음식명의 한글 번역에 사용하는 번역 전략은 ‘한자어 음역’이 80개로 가장 많으며 전체 비율의 50%를 넘었다(52.9%). 다음으로는 ‘한자어 음역+설명’이 63개로 41.7%를 차지했다. ‘직역’과 ‘중국어 음역’ 등 다른 번역 방법도 사용되었지만,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중국 음식 문화사』는 『풍미인간 시즌 2』와 달리 ‘한자어 음역’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음식 문화사』만의 특징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번역 전략의 차이가 해당 서적뿐 아니라 서적 전반의 특징에 따른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음식이 많이 등장하는 다른 책을 선정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화 요리에 담긴 중국』에 사용된 중국 음식명은 총 334개이며 음식명의 한글 번역에 사용된 번역 전략은 ‘중국어 음역’이 233개로 전체 비율의 거의 70%에 달한다. ‘한자어 음역’, ‘직역’, ‘중국어 음역+설명’ 비율은 ‘중국어 음역’에 비해 비율이 낮게 조사되었다. 그 밖에 다른 번역 방법도 있지만 전술한 번역 전략에 비하면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식당의 차림표처럼 중국 음식을 소개하는 책 『중화미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중화미각』에 나오는 중국 음식 명칭은 총 203개이며 음식명의 한글 번역에 사용된 전략 가운데서는 ‘한자어 음역’이 148개로 전체 비율의 72.9%에 달했다. ‘한자어 음역+설명’, ‘직역’, ‘중국어 음역’은 각각 10% 이하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밖에 다른 번역 방법도 있지만 비율이 낮았다.

이처럼 총 세 편의 서적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중국 음식 문화사』는 자국어화 번역 전략을, 『중화 요리에 담긴 중국』은 이국어화 번역 전략을 주로 선

택하고 있었으며 『중화미각』은 자국화 번역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적 텍스트에서는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 시 주로 자국화 번역 방법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 데이터 『풍미인간 시즌 2』의 이국화 번역 전략 선호 양상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본고의 주요 연구 대상 다큐멘터리 『풍미인간 시즌 2』가 화면과 소리로 내용을 기록한다는 것과 달리 서적 텍스트는 주로 글자로 모든 내용을 종이에 담아낸다. 이 점에서 다큐멘터리 텍스트와 서적 텍스트의 정보 전달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다큐멘터리는 짧은 시간 내에 피동적으로 정보를 얻는 특징으로 인해 시청자로 하여금 음식의 기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서적의 경우 독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비교적 길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서적 비교 데이터 중 중국 음식 명칭이 한국어 번역본에 등장할 때 한국어 등가어가 있는 경우 바로 ‘직역’을 채택하고 한국어 등가어가 없는 경우 한국 독자들에게 더 친숙한 한자어, 즉 ‘한자어 음역’의 번역 방식을 많이 채택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다큐멘터리 텍스트가 이국화 번역 전략을 채택하는 반면 서적 텍스트는 자국화 번역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두 텍스트의 매체가 다른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번 연구 문제에 대한 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2 토론

분석 결과, 주 데이터인 다큐멘터리 『풍미인간 시즌 2』와 다른 두 편의 다큐멘터리 텍스트는 이국화 번역 전략을 선호하고 서적 텍스트는 자국화 번역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번역 전략의 선택은 텍스트의 매체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직역과 의역은 이에 따라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다큐멘터리의 번역 전략 정리

등가어 유무	세부 분류	번역 전략	예시
등가어가 있는 경우	1. 한국에 존재하는 것 2. 한국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알려진 것	직역	1. 小磨香油-참기름 2. 打糕-떡 3. 炒米粉-볶음 쌀국수 요리
등가어가 없는 경우	1. 한국에 존재하지 않고 한국 사람이 전혀 모르는 것 2. 한국 사람이 아는 요리인데 식재료나 요리 방법을 잘 모르는 것	1. 중국어음역 2. 중국어음역+설명 3. 중국어음역+직역	1. 剔尖儿-티자오 2. 翡翠燒麥-페이추이 샤오마이 (채소 샤오마이) 3. 火腿炒飯-휘투이볶음밥
	1. 한국에 있는 음식과 비슷한 제조 방법으로 만든 것 2. 중국 고전에 기록된 옛날 음식(지금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	한자어 음역	1. 豆瓣醬-두반장 2. 養生軟羊面-암생면 양면 3. 桐皮面-동피면
	글자 그대로 뜻과 실제적인 뜻을 설명하는 것	의역	胡虜之食-호식, 즉 오랑캐 음식

앞에서 언급한 다큐멘터리 세 편에서 각 번역 전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다큐멘터리 텍스트의 경우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 시 ‘중국어 음역+설명’ 즉 이국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청자들이 다큐멘터리를 볼 때 시공간적 제약으로 한자어 번역문을 보고는 무슨 뜻인지를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하므로 한국어에도 한자어가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평소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를 보면 그 의미를 금방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肉夾饅’는 한자어로 음역하면 ‘육가모’로, 한자어지만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 다큐멘터리의 자막은 시청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중국어 음역 ‘리우자모’로 번역하면 시청자가 듣자마자 외래어임을 알아차리고 화면을 참고해 중국 음식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서적 텍스트의 번역 전략 정리

등가어 유무	세부 분류	번역 전략	예시
등가어가 있는 경우	1. 한국에 존재하는 것 2. 한국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알려진 것	1. 직역 2. 직역+중국어 음역	1.江米粥-참쌀죽 2.蘿卜咸菜-무짬지 3.荔枝-여지(荔枝, 리즈)
등가어가 없는 경우	1. 한국에 존재하지 않고 한국 사람이 전혀 모르는 것 2. 한국 사람이 아는 요리인데 식재료나 요리 방법을 잘 모르는 것	1. 중국어음역 2. 중국어음역+설명 3. 중국어음역+직역 4. 중국어음역+한자어음역+설명	1.酸辣土豆絲-짜라투더우쓰 2.蝦餃-하까오 (蝦餃, 새우 만두) 3.茅台酒-마오타이술 4.베이징고압(北京烤鴨, 베이징 오리구이)
	1. 한국에 있는 음식과 비슷한 제조 방법으로 만든 것 2. 문장 앞뒤 내용을 통해 이미 자세히 설명	1. 한자어음역 2. 한자어음역+설명 3. 한자어음역+중국어음역	1.佛跳牆-불도장 2.什綿-십면(글자 그대로라면 열 가지가 들어갔다는 뜻이나 실제로는 모든 재료가 들어간 것을 가리킨다) 3.胡餅-호병, 후빙
	글자 그대로 뜻과 실제적인 뜻을 설명하는 것	의역	壽桃-복숭아 모양의 케이크인 수도

중국 음식 소개 서적 세 권에 대한 분석 결과,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 시 ‘한자어 음역’, 즉 자국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서적이라는 매체의 특성 상 독자들이 번역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 제약이 있는 다큐멘터리에 비해 번역 방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자어가 자국화에 해당하는지, 이국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한국의 한자음이 약 1400년 전의 고대 중국 발음에서 유래하였고 역사적으로 보면 한자음도 중국 음이라는 주장은 맞지만 이미 수천 년 세월을 거치는데 한국어화한 한국 음이기도 한다(嚴翼相, 2009, p. 275).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발음은 현대 중국의 중국어 발음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자어 발음은 중국 한자에서 유래한 발음이라기보다는 고대 중국어 또는 지금도 고대 중국어 발음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남방 지역의 방언 발음이다. 하지만 ‘한자어 음역’이 자국어화와 이국화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논의에 상관없이 이제 한국에서 한자를 이해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으므로 한자음 표기가 한국인에게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며, 더 중요하게는 한글 글쓰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문자로서 한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어 발음 표기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嚴翼相, 2009, pp. 276-277).

5. 결론

그동안 중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는 주로 홍콩 영화, 대만 가요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과 중국 대륙 간의 문화 교류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중국 대륙과 한국 사이에도 이제 매우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자어 음역과 중국어 음역의 선택도 이런 시대적 변천에 따라 전개되었다. 이런 변천은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든 다큐멘터리 텍스트와 서적 텍스트 속 중국 음식명의 한국어 번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분석 대상 텍스트와 언어 쌍을 확대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던 다큐멘터리 텍스트를 대상으로 중국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 전략을 고찰했으며 그 차이를 서적과 비교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도로서 가치를 지닌다.

참고문헌

- 강수정 (2010) 「중한 번역에서 문화소의 부등성에 따른 번역 전략」, 『번역학 연구』 11(4): 7-23.
- 금지아 (2015) 「한중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16 (3): 7-26.
- 김미경 (2018) 「중국 음식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고찰」, 『중국과 중국학』 (35): 67-85.
- 김천향 (2021) 「[홍루몽 (紅樓夢)] 현대 한글 번역본에 나타난 음식명 번역 양상」, 『T&I review』 11: 7-34.
- 김혜림 (2012) 「한중간 음식명 번역양태 비교」, 『통역과 번역』 14 (1): 49-69.
-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
- 박향숙 (2011) 「다큐멘터리번역의 기본특성」, 『중국조선어문』 2011 (5): 34-35.
- 嚴翼相 (2009) 「중국어 외래어를 원지음으로 표기해야할 이유」, 『중국어문학 논집』 (56): 265-279.
- 이근희 (2003)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 (相關語)의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4(2): 5-27.
- 이월 (2020) 「중국 통과외래와 관련된 음식 명칭의 한국어 번역전략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철원 (2005) 「中國의 飲食文化와 政治」, 『중국문화연구』 6: 29-49.
- 李海元 (2007) 「中國飲食文化의 內在의 意味 研究」, 『중국문화연구』 11: 333-363.
- 조재범 (2015) 「한영 자막 번역과 문화소 번역 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채비 (2020) 「다큐멘터리의 중한 번역 방법 연구 : 『풍미인간 (風味人間)』의 음식 문화소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Choi, G. H. (2016). A Dual Scandal of Translation: The Un-ethics of Domestication in the Korean Bestseller Translation of the English book: Don't Eat the Marshmallow... Yet!.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7(2), 311-340.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England: Routledge.

<인터넷 자료>

360百科風味人間第二季

<https://baike.so.com/doc/29778041-31329204.html>

NAVER 사전

<https://dict.naver.com/>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YouTube

<https://www.youtube.com/>

騰訊視頻

<https://v.qq.com/>

중국CCTV1채널

<https://tv.cctv.com/2017/01/19/VIDAtfyRXSWBaJGZ1itGdZFE170119.shtml>

중화 TV

<http://zhtv.tving.com/zhtv/>

<분석 대상 텍스트>

다큐멘터리 텍스트

『풍미인간 시즌 2』

<https://zhtv.cjenn.com/ko/fengweirenjian2/>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 시즌1』

<https://www.youtube.com/watch?v=f71nIF8QmzY>

『인사이트 아시아 - 누들로드』

<https://serieson.naver.com/v2/broadcasting/350371>

서적 텍스트

고광석 (2002) 『중화요리에 담긴 중국』,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권운영 외 (2019) 『중화미각』, 문학동네.

왕런상 저, 주영하 역 (2006) 『중국음식문화사』, 민음사.

번역 · 언어 · 기술 제4권

유일범

동국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번역학전공 박사과정

liuyifan96@naver.com

관심분야: 문학번역, 영상번역

논문투고일: 2022년 12월 29일

심사완료일: 2023년 1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10일

번역사회학 시각에 기반한 대화통역장에서 통역사 아비투스 양상에 대한 연구

이 민

(대원외대)

Li, Min. A Study on the Interpreter's Habitus in the Conversational Interpretation Based on the Translation Sociology Perspective

The interpretation is a social practice carried out by an interpreter. The complete acquisition of the source languages and target languages is cultural capital of the interpreter, and all of the internal-language or extra-language acts shown by the interpreter can be regarded as the habitus of the interpreter. Based on Pierre Bourdieu's sociological theory, this paper examined the interpretation behavior of interpreters in the process of conversational interpretation using his core concepts such as field and habitus, and examined the aspects of interpreter's habitus and the impact of interpretation's field on interpreter's habitus. As a result, the interpreter mediates communication, promotes communication, and actively intervenes in interpretation activities with the capital that fully understands the source languages and target languages.

- ▶ Key Words: Habitus, translation sociology, conversational interpretation
- ▶ 키워드: 아비투스, 번역 사회학, 대화통역

1. 들어가기

서양에서든 동양에서든 통번역은 아주 오래된 인류의 활동 행위이다. 전체적인 인류의 역사 흐름을 보면 번역은 언어만큼 기나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원시 사회에서 두 부락끼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존재에서부터 서로 평화롭게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데에 이르기까지 언어와 사상의 교류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상호 이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통번역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譚載喜, 1991, p. 3).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통번역이 발생한 이유, 또한 통번역이 존재한 이유는 바로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 간에 교류하기 위해서이다.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를 위해 형성한 관계는 사회적인 속성을 가지게 마련이다(許鈞, 2003, p. 69). 서구 학자들의 인식에 따르면 번역은 본질적으로 사회 내에서 형성되고,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사회적인 활동이다. 번역 행위의 주체와 번역 활동 자체는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반영하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형성하기도 한다(이영훈, 2021a, p. 52). 즉 한마디로 인간의 행위로서 번역은 틀림없이 사회성을 가지게 된다.

통역은 문자의 발명과 이를 기반으로 한 번역보다 더 오래되었다(피히하커, 2009, p. 22). 그 오래된 기원을 살펴보면 통역은 각기 다른 언어나 문화 공동체의 구성원이 특정 목적을 위해 접촉할 때에 발생되었고 다양한 사회 간 환경 속의 사회적 주체 간의 접촉 외에 복수의 언어가 존재하는 한 사회 내에서도 증대된 의사소통이 발생할 수 있다(피히하커, 2009, p. 28). 통역 활동 과정에서 통역사의 기본적인 책임이란 발화자 및 청중 사이에서 상호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형성시키고 서로 간의 이익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王克明, 2009, p. 45). 발화자는 통역사의 통역에 의해 언어 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발화의 내용을 청중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청중도 마찬가지로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야 발화자의 발언 의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서로 간의 언어 소통을 이룰 수 있고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출발어 전환 과정에서 발화자, 통역사 및 청중은 통역 활동의 주체로서 사회적 순환 시스템을 형성하고 통역 행위 자체가 이 사회적 교류 활동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활동으로서 통역사가 전달하는 것은 언어뿐만 아니라 도착어 문화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통역 과정에서 통역사는 단순히 한 가지 언어 형식을 다른 언어 형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정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출발어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메시지를 도착어로 청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통역 활동은 통역사가 커뮤니케이션 상황, 화자,

청자와 서로 연계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언어 정보, 커뮤니케이션 의도, 커뮤니케이션 각 주체 간의 관계 이 세 가지 요소와 직결된다(陳菁, 2013, p. 67). 그렇다면 통역 활동의 주체로서 이러한 통역사의 통역 행위는 사회학의 접근으로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일찍이 그의 <구별 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이라는 저서에서 유명한 사회 분석 모델인 ‘[아비투스(habitus) x 자본(capital)]+장(field)=실천(practice)’이라는 주장을 제시했다(1984, p. 101). 즉 인간의 행위(혹은 실천)는 자본, 아비투스, 장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이다.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과 그 주요 개념들을 바탕으로 통역을 정의해 보면 통역은 통역사가 통역장에서 실행하는 사회적 실천이고, 출발어와 도착어를 완벽하게 습득한 것은 통역사가 통역장에서 가진 문화적 자본이며 통역사가 통역 과정에서 보여준 언어내적, 또는 언어외적인 행위들은 모두 통역장에서 개인의 문화자본에 따른 통역사의 아비투스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에 기반하여 그가 제시한 핵심 개념인 장과 아비투스 등을 활용하여 사회학 접근으로 대화통역 과정에서 통역사의 통역 행위를 고찰하여 통역의 장에 따른 통역사의 아비투스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고 통역의 장이 통역사 아비투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부르디외의 번역사회학 관점 및 번역

2.1 부르디외의 주요 사회학 개념

부르디외는 철학 공부로 시작해서 사회학으로 전향한 프랑스의 학자이다. 일찍이 프랑스 최고의 석학들이 전문 지식인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콜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직을 맡은 바 있다(이영훈, 2021a, p. 52).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의 핵심이 되는 주요 개념들은 주로 “장”과 “아비투스”와 “자본”이다. 부르디외는 사회를 단순한 개인의 결성 내지 총합이라 보지 않고 개개인의 상위에 존재하여 이들의 사고와 활동을 지배하면서도 서로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실체로 간주했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사회는 구성원들의 실천의 공간, 즉,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관찰 가능한 활동의

공간인 장들로 구성되어져 있다(이영훈, 2021b, p. 236).

“장”은 그 안에서 다양한 개인 및 제도 세력 간의 대결이 벌어지며, 상징 및 물질 재화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무대이자, 사회 내에서 권력 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간이다. “장”은 특별한 형태의 자본을 형성하는 장소, 그리고 행위자들 간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관계 구조(피에르 부르디외, 2002, pp. 27-30) 및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는 사회적인 구조로 볼 수 있다. 지적인 장, 종교적인 장, 예술적인 장, 경제적인 장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객관화된 제도나 조직, 사회 분야나 영역 일반에도 “장”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고광식, 2022, p. 66).

“장” 내의 서열 관계는 장 내부 행위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본의 크기를 바탕으로 하고, 경제적 자본(돈, 각종 재화), 사회적 자본(출신, 인맥), 문화적 자본(지식, 취향), 상징적 자본(학력, 자격, 명성 및 권위) 등은 바로 “장”의 구성원들이 서열 관계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다(이영훈, 2021b, p. 236).

아비투스 개념은 개인의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특정한 “장”의 관계에서 행위 주체가 획득한 “영속적이며 또한 변화 가능한” 성향의 체계이다(Bourdieu, 1979). 습관과 가까우면서도 성장 과정과 사회 활동을 통해 습득하고 각종 사회 공간 내에서 형성되거나 조절된 개인의 기질이나 성향을 나타낸다. 또 한편으로 “아비투스”는 소위 말하는 습관과 달리 반복적이기는 하지만 행위자와 사회의 장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생성적”인 성격을 보유한다(이성희, 2013, p. 155). 부르디외에 의하면 개인의 행동은 본인의 과거 경험(성장과 교육), 현재 상황들(실천 환경 및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로 인해 형성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비투스”가 개인의 현재 실천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어 사회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결국, “아비투스”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조화하는 요인이기도 하다(이영훈, 2021a, p. 55).

2.2 선행연구

20세기 90년대 말 이후부터 번역학계에서는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일찍이 1998년 번역학학 르페브르(Lefevre, 1998, p. 42)가 논문집 <문화의 구축(constructing cultures)>에서 부르디외의 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번역 문제를 다루었으며, 다니엘 세미오니(Daniel Semioni, 1998, pp. 1-39)가 번역 학술지 <Target>에서 부르디외가 제시한 아비투스 개념이 번역 연구, 특히 기술적 번역학 연구에 대한 보완성

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 후 구앙비크(Gouanvic, 2002)등 학자들이 잇따라 부르디외가 제시한 “장”, “자본”, “아비투스” 등의 개념을 통한 번역 연구에 있어서 부르디외 사회학의 접근에 대하여 논의했다.

중국에서는 이론 연구의 측면에서 李紅滿(2007)은 번역 사회학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의 역할을 논의하면서 부르디외의 이론이 번역학 연구에 도입된 이래 거둔 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개했으며 王悅晨(2011)은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의 키워드에 대해 자세하게 해석했다. 邢傑(2007)은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과 번역 규범 개념 간의 관계를 소상하게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부르디외 이론의 주요한 개념에 대한 구앙비크의 해석과 접근을 정리했다(邢傑 등, 2019). 王進(2021)은 동서양 문화 맥락에 입각하여 아비투스 개념의 중국어 번역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이론 접근의 측면에서 최근 몇 년 중국 학자들은 부르디외의 사회학 개념을 도입하여 미국 버전의 중국 청나라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후궁 드라마 <진환전(甄嬪傳)>을 사례로 드라마 번역 전략을 논의하였고(熊俊, 2016), 徐光啓, 마테오 리치가 함께 번역한 <기하원본(幾何原本)>을 사례로 번역자 및 번역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했으며(辛紅絹 등, 2018), 그 외적으로 黃勤(2018), 王洪濤(2018), 滕碩(2019), 胡爲偉(2019)는 각각 <서유기>의 독일어 번역, 郭沫若의 번역 활동, <魯迅小說全集>, 명나라 말 청나라 초 선교사들의 과학기술 번역 등을 다루었다. 이렇듯 중국 번역학 연구 분야에서는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의 접근이 이미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통역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부르디외의 장, 자본과 아비투스 이론의 접근으로 한 연구로 李忠輝(2021)의 청나라가 조선 왕조의 사신을 알현하는 권력적인 장에서 중한 통역사의 개인적인 아비투스에 따른 통역 원칙과 전략에 대해 분석한 것이 있다. 이 연구는 중한 통역의 역사 연구 범위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을 통역 연구에 도입한 첫번째 시도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부르디외 이론에 기반한 대부분의 연구가 그동안 주로 사회학 연구 분야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그가 제시한 여러 가지 핵심 개념 중에서 “자본”을 위주로 하는 경험적 연구가 대부분이다(이성희, 2013, p. 158). 번역학적 접근들 가운데에서 이영훈(2021)이 한국에서 최초로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 “번역사회학”에 대한 개설 및 간략한 관련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텍스트 밖, 즉 생활 세계로 시각을 돌려 언어 맥락이 아닌 상황 맥락에서 번역 과정과 그 결과를 관찰하고 설명했으며, 사회 대 개인 간의 대립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실천으로 번역을 이해하는 한편, 언어

학적 문제 의식에 함몰되어 온 지난날 번역학의 자기 반성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의 선행연구를 보면 통번역학계에서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을 접근한 연구는 번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통역 분야를 다룬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통역 분야를 주목하여 통역장이 통역사의 아비투스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3. 대화통역 및 데이터 수집

3.1 대화통역의 정의 및 특징

통역장은 통역 활동이 발생하는 영역에 따라 정치 외교 통역, 의료 통역, 비즈니스 통역, 법정 통역, 미디어 통역 등 여러 가지가 있다. Mason(2000, p. 216)에 따르면 대화통역은 대개 통역사를 제외하고 출발어 발화자와 도착어 청자가 관련되며, 발화의 내용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자연발생적인 담화를 다룬다. 발언 시간이 짧으며 통역이 양방향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발화의 언어 메시지가 사전에 계획되고 늘 원고가 있으며, 발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정치 외교 분야의 연설 통역과 구분된다.

흔히 통역사는 연사의 입이 된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연사가 발화한 내용에 대해서 통역사가 임의적으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충실하게 전달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통역사는 단순히 발화자의 말을 도착어로 옮기는 “치환”에 그치는 않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재”를 통해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김영주, 2021, p. 67). 이는 통역사들이 통역장에서 개인의 자분을 가지고 아비투스를 실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Wadensjö(1998, p. 149)에 의하면 대화통역사의 중재적 측면이 지각적 사유 때문이거나 또는 통역사의 능력이 부족할 때, 혹은 올바른 “역문” 제작이 위태롭거나 통역사의 판단에 주 대화자들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인해 충돌할 우려가 있을 시, 그리고 통역사가 한 쪽의 대화자의 주도적 발화에 의해 “사로잡힐” 때 즉, 통역사가 직접 질문에 대답하거나 직접 지원 요청에 대해 응답하는 상황에서는 많이 나타난다. 명시적으로 대화자들에게 좀 더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대화자에게 다시 한 번 발언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3.2 데이터 수집

대화통역장에서 통역사의 아비투스를 관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실제 통역장에서 발생했던 통역 사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론을 얻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역사의 실력과 데이터의 유효성 이 두 가지 변수를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공개성, 가치성, 진실성 및 규모성 등 기준으로 선별하여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16차례의 미디어 분야의 순차통역을 데이터로 선정했다. 그 중 몇 명의 통역사는 두 번 혹은 두 번 이상의 통역 업무를 맡았다. 통역사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알아볼 수는 없지만 인기 한류 스타의 미디어 활동이며 지명도가 높은 기관이나 미디어 업체에서 주최한 행사이니만큼 이는 행사에 참여한 통역사의 실력 역시 어느 정도 인정받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영상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수동으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워드문서로 만들었다. 전사 후의 문자 자료는 중국어가 47,309자이고, 한국어는 56,266자에 달한다. 다음으로 중한 통역일 경우 중국어 텍스트의 정보 절을 단위로 나누었고 한중 통역의 경우 한국어 텍스트의 문장을 단위로 나눴다. 마지막으로 얼라인먼트를 구축한 데이터를 관찰하여 각 통역장에서 통역사의 아비투스를 관찰하였다. 얼라인먼트를 구축한 데이터를 관찰한 결과, 출발어와 도착어는 대체적으로 등가 번역과 비등가 번역의 두 가지 있는데, 이중 비등가는 대체적으로 첨가, 삭제, 수정의 3가지가 있다. 통역사의 아비투스 양상에 대해서는 주로 비등가에 기초하여 분석하기에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각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출발어와 도착어에 관해 정량적 분석을 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AntConc 프로그램을 이용해 키워드 검색을 하고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기로 하고, 우선 구축한 얼라인먼트를 txt 문서로 전환시키고 AntConc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4. 대화통역장에 따른 통역사의 아비투스에 대한 분석

4.1 데이터 통계

대화 통역장인 미디어 통역의 데이터에 대해 AntConc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해 보니 주석을 단 키워드는 모두 1118개가 있었고, 그 중 등가가 484번이 있고 비등가 중에서는 첨가[A]157번, 삭제[R]195번, 수정[C]243번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비통역대화[T]39번이 있었다. 주석을 단 키워드의 빈도수가 [E]41.69%, [A]13.52%, [R]16.8%, [C]20.93%, [T]3.36%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표 1> 미디어 통역장에서 통역사 행위에 대한 통계

등가(Equal)[E]	등가 번역	484
첨가(Addition)[A]	출발어 내용에 대한 부언 설명	84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명시화시킴	63
	의사소통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메시지를 더 붙임	10
삭제(Reduction)[R]	군더기 메시지(반복과 말버릇 등)를 삭제함	127
	긴 출발어 내용을 압축시킴	67
	커뮤니케이션 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발어를 삭제함	1
수정(Correction)[C]	배경 지식에 의해 출발어를 수정함	23
	현장 분위기를 조정하고 커뮤니케이션 상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발어를 수정함	15
	출발어 정보를 해석함	163
	기타 표현으로 출발어를 대체함	42
비통역대화 (untranslation)[T]	발화자의 질문에 직접 대답함	18
	발화자에게 직접 질문함	7
	통역 활동의 흐름에 기입함	10
	통역사의 혼잣말	4

위에 표에서 나타나듯이 미디어 통역장에서 통역사의 통역 아비투스 유형이 크게는 등가와 비등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비등가에는 첨가, 삭제, 수정 및 비통역대화 4가지가 포함된다. 이 중에서 첨가는 주로 출발어 텍스트에 대한 부연 설명;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명시화시킴; 의사소통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도착어에서 메시지를 덧붙이는 것 등 3가지유형이 나타나고, 삭제는 군더기 메시지(반복, 말버릇 등)를 삭제함; 긴 출발어 내용을 압축시킴; 커뮤니케이션 상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발어를 삭제함 등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수정은 주로 배경 지식에 의해 출발어를 수정함; 현장 분위기를 조절하고 커뮤니케이션 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발어를 수정함; 출발어 정보를 해석함; 기타 표현으로 출발어를 대체함 등 4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도 통역 과정에서 출발어 텍스트에 대한 통역이 아닌 통역사의 개인적인 발화가 나타나는데 주로 발화자의 질문에 직접 대답함, 발화자에게 직접 질문함, 통역 활동의 흐름에 기입함, 통역사의 혼잣말 등 4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빈도의 차이로 보면 등가가 41.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비등가로서 수정, 삭제, 첨가, 비통역대화 순으로 각각 20.93%, 18.8%, 13.52%, 3.36%로 나타난다.

4.2 데이터 분석

베데커와 페이나워(Bedeker and Feinauer, 2006, p. 133)에 의하면 순차통역을 할 때 출발어 발화자와 도착어 청자 사이에서 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므로 통역사가 대화의 촉진자 혹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즉 통역사가 통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언어 전환 외에도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디어 통역장에서 통역사의 아비투스에 대해 통계한 결과로 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4.2.1 언어적 측면의 100% 치환을 안 한다.

통계를 보면 도착어에서 출발어에 대한 전환이 언어학 측면에서 기대하는 100% 등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미디어 통역장에서 통역사의 등가 처리 비율이 41.69%로 나타났는데 순차통역 과정에서는 특히 즉석 통역에서 통역사가 출발어 텍스트, 통역의 환경, 개인의 인지 능력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출발어 메시지를 100% 도착어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통역사가 출발어 문화와 도착어 문화, 그리고

출발어 발화자와 도착어 발화자 사이에서 출발어 문화와 도착어 문화 간의 갈등을 해소 시켜주고, 발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통역은 두 가지 언어 간의 1대1로의 전환이 아니라 출발어와 도착어가 속하는 사회 분위기, 통역사의 주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 과정에서 통역사는 어쩔 수 없이 완전한 언어학 측면의 충실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역 활동에 따라 통역 행위를 수행한다.

4.2.2 주체성을 발휘하여 대화를 촉진한다.

통계를 관찰해 보면 통역장에서 통역사들이 모두 현장 분위기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출발어에 대한 첨가, 삭제, 수정으로 나타난 통역사의 아비투스 를 보면 통역사들은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도착어를 덧붙이고 커뮤니케이션 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발어를 삭제하며 현장 분위기를 조절하고 커뮤니케이션 상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발어를 수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역장의 분위기를 통역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 통역사가 통역 활동의 주체로서 발화자와 청자 간의 다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149)

RAIN: 네, 사실 중국에 늘 많이 오고 싶는데 너무나 많은 작품과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활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 드리려고 했어요.

통역사: 其實我一直想經常來中國，跟大家見面互動這樣子。但是我還要去完成更多的作品，還有一些歌曲表演什么的，其實我更希望的是把我個人的一些另外的一些活動展現給大家。

<출처> 2011.3.1. 한국 스타 RAIN의 SOHU 인터뷰

데이터(149) 중에 통역사가 도착어 “一直想來中國(중국에 늘 많이 오고 싶다)” 뒤에 “跟大家見面互動(여러분과 소통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는데, 만약에 발화자인 정석훈씨가 “想來中國(중국에 오고 싶다)”라는 말만 전달하고 뒤에 덧붙인 설명이 없었다면 청중들은 중국에 “광고, 드라마,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온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跟大家見面互動(여러분과 소통하고 싶다)”이라는 메시지를 첨가했기 때문에 중국에 온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중국에 온 목적이 다른 아닌 “팬”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통역사가 도착어에서 첨가한 이 메시지가 발화자의 생각이 아닌

통역사 개인적인 주체성 발휘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자주성을 발휘함으로 발화자인 정석훈씨와 청중 간의 관계를 가깝게 하였고, 정석훈씨의 친절한 이미지를 더욱 부과시킬 수 있었다.

(2)(924)

유아인: {아까 사장님께서 뭐 말씀하셨는지} 통역해 주신 것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깝지 않아요?

통역사: 其實剛剛張先生{老板}就是講過嘛,說我們中國跟韓國這個文化背景啊,其實很近的,沒有一些什麼距離感。

<출처> 2014.5.27.<일화> 유아인 SOHU 팬미팅

데이터(924) 중 발화자의인 유아인씨가 출발어에서 “통역해 주신 것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라고 말했지만 통역사는 통역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삭제하고 통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아인씨의 뒤에 있을 모든 발언이 모두 통역사의 통역에 의해서 얻은 정보인데 통역사가 발화자인 유아인씨의 이 말을 그대로 전달시킨다면 청자들은 통역사의 통역 실력을 의심할 수 있고, 통역사 자신을 어색한 경우에 빠지게 할 수 있었다.

(3)(265)

김수현: 날씨가 화창해서 또 북경에 높은 건물들도 없어서 뭐랄까요? 굉장히 시원한 이미지를 받았습시다.

통역사: 然后呢,剛好我住的酒店前面没有什么高樓大厦盖着,所以視野也很寬闊,挺舒服的。

<출처> 2014.4.6. 김수현 iQIYI 베이징 팬미팅

데이터(265)의 출발어에 “북경에 높은 건물들도 없어서”라는 표현이 나왔다. 발화자인 김수현씨는 베이징에 많이 와 보지 못했고 올 때마다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했기 때문에 베이징에 대해 잘 모른 상태에서 머무르는 호텔 주변만으로 이런 판단을 내리기에 타당하지 않았다. 만약에 현장에서 통역사가 이 내용 그대로 청중들에게 전달했다면 김수현씨가 베이징을 무시한다고 청자들은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럴 경우 청중들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현장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불쾌한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 통역사는 도착어에서 “剛好我住的酒店前面没有什么

高樓大廈盖着(제가 머무르는 호텔 주변은 높은 빌딩으로 가려지지 않았다)”라고 전달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수현씨가 발언하는 의도를 전하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4.2.3 발화 순서를 바꿈으로써 통역 활동에 개입한다.

통역 활동에서 가끔 통역사가 하는 말이 출발어 텍스트를 통역한 것이 아닌 통역사의 개인적인 발언일 수가 있다. 텍스트에 대해 분석을 해 보니 미디어 통역장에서는 통역사의 비통역 대화가 39번으로 3.36%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1)(47)

기자: 張根碩先生這次來到北京參加咖啡陪你見面會, 您最大的感触是什么呢?

통역사: 이번 북경에서 카페베니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 제일 많은 것을 느낀 것이 있다면.....

(48)

장근석: 이번예요?

통역사: 네, 이번 전체적인 팬미팅이요.

<출처> 2014.4.26. 한국 스타 장근석의 카페베니 베이징 팬미팅

데이터(47)과 (48)은 연속적인 발화이다. 내용상으로 이 두 발화는 순환적인 전환 모델이 아닌 데이터(48)에서 발화 순서가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데이터(47)에서 통역사가 사회자의 질문을 인터뷰 대상자인 장근석씨에게 전달한 후에 다시 데이터(48)에서 통역사가 장근석씨의 말을 치환해서 사회자에게 전달하여 하나의 대화 순환을 형성했어야 했지만 통역사가 데이터(48)에서 장근석씨가 이야기한 “이번예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이 메시지를 전환해서 사회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네, 이번 전체적인 팬미팅이요”라고 대답했다.

(2)(958)

송혜정: 당시 영화 설정 자체가 어떤 중국 아가씨가 설정됐었고 그 와중에 사실은 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가 좀 미안하지만 다른 여배우를 선택했다가 그 배우가 일정이 안 되는 바람에.....

통역사: 當時我們就是爲了選擇中國的演員, 我就到處詢問, 而且曾經是跟一位女演員談過一些.....

(959)

통역사: 뭐가 안 되신다구요? 아, 일정, 스케줄이요?

통역사: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 주세요.

<출처> 2012.8.29.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한국영화전 기자회견

다음 데이터(960)의 내용을 참고하여 유추하면 통역사가 통역 과정에서 개인적인 발언을 한 것은 현장 마이크 효과가 안 좋거나 발화자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통역사가 발화자인 송해청 감독님의 발언 메시지를 못 알아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역사가 정확한 출발어 정보를 듣고 나서 송해청 감독님의 발화 의도를 도착어 청자들에게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통역사가 능동적으로 송해청 감독님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기에 통역사가 이렇게 말한 것은 통역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267)

기자: 所以你剛剛說你愛吃烤鴨。你吃到了烤鴨，你不怕胖嗎？這個身材。

통역사: 살찌는 건 두렵지 않으신지? 下面的提問可以不要再問一些額外的問題好嗎?

<출처> 2014.4.6. 김수현 iQIYI 베이징 팬미팅

데이터(267)에서 기자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에서 벗어난 질문을 계속했다면 인터뷰를 받은 한국 배우 김수현씨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김수현씨와의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방해할 수도 있었다. 통역사는 기자의 발화가 대화 행위에 있어서의 협동 원리와 정중함의 원리를 위반하고 “이미지를 회손 시키는 행위”와도 다름없어서 충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下面的提問可以不要再問一些額外的問題好嗎(다음으로 이런 질문을 삼가해주시기를)”라고 함으로써 기자의 행위를 저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의 다리 역할을 하였고 김수현씨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여서 통역 활동의 방향을 컨트롤하였다.

이상으로 통역 과정에서의 비통역 대화로 위의 예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로 발화자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기, 직접 발화자에게 질문하기, 통역 활동을 중재하기 등 3가지 유형을 포함한 것 외에도 통역사의 개인적인 발언이 있다. 예를 들면,

(4)(610)

유지태: 글썩요. 추천하는 신인이, 신인은 아닌데 네, 한국 영화 중에 <이웃집 남자>라는 독립 영화가 있어요. 여기 이재민씨, 저하고 <남극일기>도 같이 출연을 했던 분인데 그 분이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될 영화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역사: 那其實說到這個比較看好的{這個}新人, 也不算是新人吧, 曾經跟他一塊兒出演過《南極日記》里面的劉在民嗎? 我不知道中文的這個翻譯。對, 曾經跟他一塊兒出演過《南極日記》的那位男演員。那他希望就是, 以後他會有更多更好的表現。

<출처> 2012.12.1. 한국 영화계의 팔방미인 유지태 인터뷰

데이터(610)에서 통역사가 통역 과정에서 “我不知道中文的這個翻譯(중국어로 어떻게 통역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말을 삽입했다. 이 말은 통역사가 도착어에 첨가한 개인적 발언으로 출발어 발언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고 통역 활동의 발전 흐름에도 관계가 없었지만 통역사는 통역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통역 활동 쌍방에 대한 충성도로 인해 자기가 메시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밝혔는데 위 경우는 수집한 모든 통역 데이터 중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다.

5. 통역장이 통역사 아비투스에 미친 영향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화 통역장에서 통역을 맡은 통역사들이 언어학 측면에서 등가, 첨가, 삭제, 수정 등 전략을 사용하여 통역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통역사가 통역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언어 측면에만 얽매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통역 행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4가지 통역 전략 중에서 등가의 비율이 41.6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고 중한 정치 외교 통역장에서의 통역사 등가 비율 63.98%(이민, 2017, p. 61)보다 훨씬 적었다. 미디어 통역은 대화통역 중의 하나로서 그 엄숙성이 정치외교 통역장보다 많이 떨어지기에 발화자의 발언이 구어체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 미디어 통역장에서 통역을 수행한 통역사의 아비투스는 언어학 측면에서 완전한 등가의 확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치외교 통역은 대부분 연설 통역의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출발어 메시지가 사전에 계획되고 종종 원고가 있으며 발언 시간이 길(고영민, 2005, p. 5)기 때문에 언어학 측면에서의 등가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디어 통역장에서 통역사가 메시지를 덧붙이고 삭제하며 수정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강화하고 커뮤니케이션 상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역사가 미디어 통역장에서 주체성을 발휘함으로써 현장 분위기를 조절하며 대화를 촉진했는데 현재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공개적인 미디어 통역장이 주로 팬 미팅, 기자 인터뷰 같은 곳이기에 통역장의 분위기가 통역 활동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통역장에서 통역사의 아비투스는 대화 촉진자로서 적극적으로 주체성을 발휘하여 분위기를 조절하였거나 불쾌한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역사는 발화 순서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통역 활동에 개입하였다. 1118개의 정보절 중에서 비통역대화의 비율이 39번으로 3.36%를 차지하는데, 이민(2017)에 따르면 중한 정치외교 통역장에서 통역사의 비통역대화가 537개의 정보절 중에서 2번 나타나 0.36%만을 차지하였다. 즉, 대화통역의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가 통역사가 통역 활동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대화 통역장에서의 통역사는 출발어와 도착어를 완벽하게 파악한 자분을 가지고 통역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며 통역 활동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아비투스를 보인다.

6. 나가기

본고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16차례의 미디어 분야 순차통역을 데이터로 대화 통역장에서 통역사의 통역 행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화 통역장에서 통역을 맡은 통역사들은 언어학 측면에서 등가, 첨가, 삭제, 수정 및 비통역대화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통역 업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 즉, 통역사는 통역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언어 측면에만 얽매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통역 행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필자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을 바탕으로 그의 핵심 개념들인 장과 아비투스 등을 활용하여 사회학 접근으로 통역의 장에 따른 통역사의 아비투스 양상과 통역의 장이 통역사 아비투스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론으로 대화 통역장에서 통역사는 출발어와 도착어를 완벽하게 파악한 자분을 가지고 통역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며 통역 활동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아비투스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중한 미디어 통역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대화 통역장에서 통역사의 아버투스스를 관찰해 봤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설문조사, 인터뷰 등 방법을 통해서 다방면적으로 통역사의 아버투스스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중한 통번역 분야에서 활동하는 젊은 연구자들이 통역 연구에 관심을 갖고 더욱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광식(2022) 「언어적 아버투스스를 통한 영화 「언터처블」의 주인공들의 언어 행위 분석: 부르디외 이론의 적용성과 관계」, 『한국프랑스학논집』 118(5): 59-86.
- 고명민(2005) 「대화통역사의 중재자적 기능」, 『통역과 번역』 7(1): 3-17.
- 김영주(2021) 「정치외교 통역사의 중재 역할에 관한 고찰」, 『번역학연구』 22(4): 67-90.
- 이성희(2022) 「부르디외의 ‘아버투스’, 장, 자본의 상호형성 매커니즘」, 『교육사회학연구』 23(2): 151-171.
- 이영훈(2021a) 「번역사회학 개관: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을 기반으로」, 『번역언어기술』 (2): 45-69.
- 이영훈(2021b) 「앙트완 베르만과 프랑스 번역학 장의 탄생: 번역사회학적 분석」, 『번역학연구』 22(5): 231-269.
- 프란츠 뢰히하커(2009) 『통역학 입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피에르 부르디외(2022) 『과학의 사회적 사용』, 조홍식 역, 서울: 창작과 비평.
- Bedeker, Laetitia and Feinauer Ilse (2006). The Translator as Cultural Mediator. *Southern African Linguistics and Applied Language Studies*, 24(2), 133-141.
- Bourdieu. P. (1984).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Trans. Richard N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iao, S., & Pan, L. (2018). Interpreter Mediation at Political press Conferences: a Narrative Account. *Interpreting*, 20(2), 188-203.
- Mason, I. (2000). Models and methods in dialogue interpreting research. In Olohan, M. (Ed.), *Intercultural Faultlines* (pp.215-231). Manchester, U.K.: St. Jerome.

Wadensjö, C. (1998). *Interpreting as Interaction*. New York: Longman.

胡衛偉(2019). 「明末清初傳教士科學翻譯之社會學考察——布迪厄“場域”理論視角」, 『上海翻譯』 (1): 44-50.

黃勤、謝攀(2018). 「翻譯場域中的資本較量對郭沫若翻譯活動的影響」, 『外語教學』 (5): 95-99.

李紅滿(2007). 「布迪厄與翻譯社會學的理论建構」, 『中國翻譯』 (5): 6-9.

李忠輝(2021). 「清代朝鮮使臣覲見時中朝口譯的原則、策略與評價——基於布迪厄的場域、慣習與資本理論」, 『外語研究』 (2): 84-100.

譚載喜(2010). 『西方翻譯簡史』, 北京: 商務印書館.

滕碩、王學博(2019). 「布迪厄場域理論視角下「西遊記」在德語區的譯介與傳播研究」,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6): 124-131.

王洪濤、王海珠(2018). 「布迪厄社會學理論視角下藍詩玲的譯者慣習研究——以「魯迅小說全集」的英譯為例」, 『外語教學』 (2)74-78.

王進(2021). 「中西文化會通視域下的“Habitus”」, 『中國翻譯』 (1): 113-119.

王克明(2009). 「翻譯與倫理學」, 『外語與外語教學』 (5): 45-48.

王悅晨(2011). 「從社會學角度看翻譯現象: 布迪厄社會學理論關鍵字解讀」, 『中國翻譯』 (1): 5-13.

辛紅娟、費周瑛(2018). 「布迪厄社會學理論觀照下的翻譯現象剖析——以徐光啓、利瑪竇翻譯「幾何原本」為例」, 『外國語言與文化』 (4): 79-88.

邢傑(2007). 「譯者“思維習慣”——描述翻譯學研究新視角」, 『中國翻譯』 (5): 10-15, 95.

邢傑、莊慧慧、郭旋(2019). 「翻譯社會學新探索——古安維克對布迪厄理論的闡釋和運用」, 『中國外語』 (6): 94-100.

熊俊(2016). 「布迪厄場域——慣習論下的影視劇翻譯——以美版「甄嬛傳」為例」, 『外國語文研究』 (1): 73-78.

許鈞(2003). 『翻譯論』,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번역 · 언어 · 기술 제4권

이민

대련외국대학교 한국어학부 교수

limin@dlufl.edu.cn

관심분야: 중한 한중 통번역 교육 및 이론 연구

논문투고일: 2022년 12월 13일

심사완료일: 2023년 1월 21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10일

[기획논문]
프리에디팅의 이해 및 활용에 대한 소고

서 보 현·김 순 영
(라이온브릿지·동국대-서울)

Seo, Bohyeon; Kim, Soonyoung. Thoughts on Understanding and Use of Pre-editing

This study explores the basic concepts and research trends of PEMT (pre-editing and machine translation), and its application in related industries. Although academic and practical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MTPE (machine translation and post-editing), PEMT is also worth exploring as it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source text (ST) which can in turn affect that of target text (TT). PEMT simplifies the original text and clarifies unclear representations, making it easier for computers to understand. Most previous studies so far have revealed the quality and effective use of PEMT, supporting its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machine translation. In translation practice, PEMT is widely used and mainly takes three forms: entrancement of ST expression, grammar, and terminology; production of ST in controlled languages; and technical writing that can improve of the quality of TT by making ST machine-translatable. Given the importance of PEMT, further in-depth research and practical efforts based on developments to date are required to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machine translation.

- ▶ Key Words: Machine Transl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Pre-editing, Controlled Language, Technical Writing
- ▶ 키워드: 기계번역, 인공지능, 프리에디팅, 통제언어, 테크니컬 라이팅

1. 서론

속도를 가늠하기 어렵게 빨라지고 있는 기술 발전은 번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상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 MT)으로 지칭되고 있는 자동번역 기술은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과 접목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번역과 관련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번역의 주체가 ‘인간’ 인지 ‘기계’ 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기계번역¹⁾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향상된 품질의 번역문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해 방대한 언어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순히 번역 엔진을 넘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초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도 등장하고 있다. 이제는 인간의 언어능력이 아니라 기술로 언어 장벽을 넘는 시대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기술 발전이 번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번역 현장인 업계나 번역 연구를 다루는 학계 모두 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업계에서는 이미 빠르게 기계번역 결과물을 후편집하는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MTPE)을 실무에 도입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해외는 물론 국내 학계에서도 이를 주제로 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신지선 2017, 2020; 김순미 2018, 2019; 이준호 2018, 2019, 2021 등). 그러나 포스트에디팅은 아직까지 미흡한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 때문에 실질적 효용성 면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다. 기계번역에 투입되는 원문의 품질에 따라 결과물의 품질 역시 영향을 받게 되며, 따라서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원문의 품질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기계번역을 먼저 하고 사후에 오류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MT+Post-editing: MTPE)뿐만 아니라 기계번역 전 단계에서 원문의 품질을 균질화하는 프리에디팅(Pre-editing+MT: PEMT)의 중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특정 품질 기준에 따른 오류수정 과정을 통하여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포스트에디팅의 관점이 아닌, 기계번역 전 단계, 즉, 기계번역을 진행하기 전에 원문을 정제하여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리에디팅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학계에서의 선행연구 및 업계 활용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 현재 기계번역은 인공지능 번역, 자동번역 등의 여러 용어로 불리는데,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계번역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한다.

2. 번역의 자동화

기계번역부터 인공지능까지 번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신 기술의 최종 목표는 “번역의 자동화”라고 볼 수 있다. 195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한 기계번역은 전시에 적국의 암호를 빠르게 자동으로 번역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Garcia, 2012). 상업 영역을 아우르며 빠르게 발전하던 기계번역은 구글이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을 세상에 선보이면서 번역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은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인공지능으로 구현하여 언어 데이터를 활용해 엔진을 학습시킨다. 사전에 준비된 학습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연산을 실시하여 번역 엔진 모델을 형성하고, 형성된 모델을 활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출력 데이터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계 학습 분야의 중요 명제인 “Garbage in, Garbage out”이 의미하는 대로 기계번역 엔진을 개발하는 데에는 양질의 언어 데이터가 필수적이다(송상현, 2020). 여기에 사용되는 언어 데이터는 출발어와 도착어로 구성된 병렬 다국어 코퍼스로 품질이 좋은 데이터를 사용할수록 번역 엔진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품질도 향상된다.

이러한 번역의 자동화는 초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초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인 GPT-3를 개발하는데 기술적인 지원을 한 Nvidia에 따르면 초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은 거대한 데이터세트에서 학습한 지식을 기반으로 언어 인식, 요약, 번역, 예측, 생성 등을 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이다(Angie, 2023). 초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은 천문학적인 양의 언어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여, 새로운 언어 콘텐츠를 매우 빠른 시간에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GPT-3는 인공지능 모델의 크기와 성능을 보여주는 파라미터가 1억 7500만 개로, 이전의 언어모델 보다 10배가 넘는 크기와 성능을 자랑한다(Brown 외, 2020). 이런 초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은 번역에만 집중한 엔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PT-3의 개발사 OpenAI가 제공하는 체험 서비스에서 품질이 준수한 번역문을 빠른 시간 안에 생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문을 빠른 시간에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 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키려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기계번역문을 수정 및 교정하는 포스트에디팅이 있다(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2017). 포스트에디팅은 기계번역 결과물을 초벌 번역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포스트에디팅을 업무 프로세스에 도입하였으며, 이를 인

증하기 위한 국제 표준 ISO 18587: 2017 또한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포스트에디팅의 품질,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계번역 결과물이 완벽한 품질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며, 따라서 기계번역 결과물을 모든 번역 분야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포스트에디팅의 효율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복잡한 구조의 문장이나 표현은 기계번역이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사후에 수정하는 것보다는 번역사가 처음부터 번역하는 것이 품질이나 속도 차원에서 더욱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이에 비해 프리에디팅은 처음부터 기계번역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원문을 수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ISO 18587도 프리에디팅을 포스트에디팅에 들어가는 노력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기계번역 결과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문 수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2017). 이렇게 프리에디팅은 포스트에디팅을 보조하는 프로세스 중 하나라는 인식과 더불어 번역 과정에서 원문을 수정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합쳐져 지금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기계번역이 만들어내는 오류의 유형이 어느 정도 분석되면서, 프리에디팅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의 예방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실무에서는 프리에디팅 외의 다른 명칭으로 불리우기도 하면서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3. 프리에디팅의 이해 및 활용 현황

3.1 프리에디팅의 이해

프리에디팅 과정에서는 긴 문장은 분절하여 간단하게 쓰고, 분사구문은 풀어서 쓰며, 모호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식으로, 이는 일면 일상의 쉬운 언어(plain language) 글쓰기와 유사하다. 그러나 프리에디팅과 일상 언어 글쓰기는 대상과 목적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일상의 쉬운 언어 글쓰기는 그 글을 읽게 될 독자, 즉 사람을 대상으로 상징하지만, 프리에디팅의 대상은 컴퓨터 혹은 기계이다. 목적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쉬운 언어 글쓰기는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반면 프리에디팅은 기계번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프리에디팅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 기계번역 결과물을 보면서 원천 텍스트를 수정하는 이중언어 프리에디팅(bilingual pre-editing)이 있고, 둘째, 기계번역 결과물 없이 원문만을 보면서 수정하는 단일언어 프리에디팅(monolingual pre-editing)이 있다. 단일 언어 프리에디팅의 경우에는 목표언어에 대한 스킬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모국어 역량만으로 프리에디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프리에디팅은 표준화된 기술 텍스트에는 도움이 되나, 정서적 혹은 소통적 요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텍스트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서신이나 마케팅 자료 등의 경우는 프리에디팅을 하는 과정에서 작지만 중요할 수 있는 뉘앙스들이 표준화되어 텍스트의 ‘맛’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프리에디팅에 적합하지 않은 텍스트들이다. 언어적으로 모호(ambiguous)하거나, 불분명(unclear)한 부분들이 주로 프리에디팅이 필요한 요소에 속하며, 사실과 다른 것은 삭제 또는 다시 쓰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계가 인식하기 어려운 개별 용어 역시 프리에디팅이 필요한 요소이다. 이외에도 문법적 모호성, 복잡어, 관용적 표현이나 복잡한 문장 구조, 기계번역으로 명확히 번역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은유표현 등 역시 프리에디팅의 대상이다.

3.2. 선행 연구

먼저 프리에디팅에 대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크게 품질과 기법의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프리에디팅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프리에디팅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계번역을 활용한 최종 번역문의 품질 향상과 일맥상통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프리에디팅 적용 여부에 따라 기계번역문의 품질을 비교하는 형식을 보여준다.

Liang, Y. & Han, W. (2022)은 원문 프리에디팅 결과(Source Text Pre-editing: STPE)와 번역문 포스트에디팅 결과(Target Text Post-editing: TTPE)의 품질과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호주 정부의 건강보건 웹페이지 자료를 영어-중국어로 기계번역한 결과물을 사용하였으며, STPE 후 기계번역 결과 및 기계번역 후 TTPE 결과를 비교하였다. 사용된 기계번역 엔진은 구글 번역(Google Translate)이며, 품질 분석은 가독성(fluency), 정확성(accuracy), 문화 적절성(cultural appropriateness)을 기준으로 영어 및 중국어가 가능한 평가자가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로 원문 프리에디팅이 번역문 포스트에디팅 보다 더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 저자들은 이에 더해 프리에디팅을 활용하는 것이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효율성이 높다면 건강보건 분야에서

기계번역의 오역을 줄이기 위해서 프리에디팅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였다.

진용주, 서보현, 김순영(2018)은 프리에디팅 진행 여부가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통번역 전공 석사과정 학생 8명을 평가자로 삼아 유창성, 충실성, 가독성의 3개 지표를 기준으로 프리에디팅을 진행한 기계번역 결과물과 아무 수정 없이 기계번역만 진행한 결과물을 비교하였다. 평가에 활용한 데이터는 총 20개의 한국어 발췌문으로, 신문기사 텍스트 16개 및 문학 텍스트 4개로 구성하였다. 먼저 신문기사 텍스트의 평가 결과는 프리에디팅을 진행한 기계번역 결과물이 큰 개선을 보였음을 나타낸다. 특히 가독성 부문에서 프리에디팅을 진행하지 않은 기계번역에 비해 유의미한 품질 향상이 있었다고 강조한다. 이에 비해 문학 텍스트에서는 프리에디팅 여부에 관계없이 기계번역 결과물이 유의미한 품질 향상을 보이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문학 텍스트를 프리에디팅하면 의미전달성이 개선되는 모습이 조금 보이나, 문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학 특성 상 유의미한 개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통해 프리에디팅을 통해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에 인간 번역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술과 상호보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런가하면 프리에디팅 기법에 대한 연구는 어떤 방식과 문체를 사용해야 더 효율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앞의 연구들이 품질을 분석하여 프리에디팅의 실효성에 대해 논했다면, 기법에 대한 연구는 프리에디팅의 형태를 세분화 해 분석하여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번역 전략, 포스트에디팅 스타일가이드 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프리에디팅 기법에 대한 연구는 번역문이 아닌 원문 수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Feifei, Rong, & Xiao(2022)는 기계번역의 품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리에디팅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총 4가지의 언어적 측면의 프리에디팅 기법을 제안하였다. 추가, 생략, 교체, 용어 전처리로 구성된 4가지 기법을 적용한 원문과 적용하지 않은 영어 원문을 중국어로 기계번역 하여 각 기법의 효과를 BLEU 점수의 차이로 제시하였다. 사용한 텍스트는 총 5개였으며, 측정된 BLEU 점수는 4가지 기법 종류에 상관없이 프리에디팅을 적용한 원문을 기계번역한 결과물에서 높게 나타났다. 저자들은 언어적 측면에 더해 다른 측면의 프리에디팅 기법 또한 적용한다면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며 프리에디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이성화, 김세현(2018)은 기계번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검토하고 편집하는 등의 추가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프리에디팅 기법을 정리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저자들은 번역학 대학원 수업에서 영어-한국어 및 한국어-영어 텍스트를 하나씩 선택하여 교수자와 학생들이 기계번역 엔진에 활용할 수 있는 프리에디팅 기법을 제안하고 분석하였다.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리에디팅 기법을 제시하는 연구들과는 다르게, 해당 연구는 언어쌍 별로 상세한 기법을 제시하였다. 분석 텍스트의 양이 제한적이었지만, 추후에 데이터가 많은 말뭉치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의 시작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한현희(2019)도 마찬가지로 기계번역 성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리에디팅을 제시한다. 기계번역의 품질을 향상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의 첫 단계가 프리에디팅임을 강조하며, 기계번역 결과물의 번역 양상과 오류를 분석하여 프리에디팅 규칙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한국어 정보성 텍스트를 활용하여 러시아어로 기계번역한 후 결과물의 오류 유형을 먼저 분석하였다. 도출한 오류 유형을 바탕으로 총 10가지의 프리에디팅 규칙을 제시하며 각 규칙을 적용한 결과를 예시로 삼아서 프리에디팅이 기계번역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분석텍스트가 적다는 한계가 있지만, 기계번역이 보이는 오류 유형을 바탕으로 규칙을 도출하여 품질이 개선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학계에서는 프리에디팅을 통한 품질 향상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전체적인 연구에서 프리에디팅이 품질 및 효율 측면에서 유의미한 장점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3.3. 실무 활용 현황

기계번역을 활용하는 번역 실무에서 프리에디팅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논의를 위해서 본고는 번역 실무를 매뉴얼이나 문서를 번역하는 기술번역 형태 위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번역이 이루어지는 원문은 심미적인 표현이나 비유가 없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문을 수정하기 위한 협의와 과정이 어렵지 않아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원문을 풀어서 쓰는 프리에디팅을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본고에서는 실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프리에디팅의 형태를 세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형태로는 원문 정제가 있다. 이는 앞에서 소개한 기계 학습의 중요 명제 “Garbage in, Garbage out”과 일맥상통하는 작업이다. 기계번역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원문을 기계번역기에서 잘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말해 기계번

역이 가능(Machine-Translatable)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실무에서는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원문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기계번역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원문 작성 및 수정 지침을 작성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의 형태나 요구사항에 맞춰 상세한 지침을 작성하기도 한다. 이는 앞에서 소개한 프리에디팅의 정의와 기법과 일맥상통한다. 일반적으로 맞춤법, 용어, 문법, 문장 구조와 같은 포괄적인 대분류에 맞추어서 상세한 지침과 예시를 제공하는 형태로 원문 정제용 지침을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원문 정제는 주로 원문의 양이 많고 기계번역 엔진을 사용하는 병렬코퍼스 구축 및 데이터 정제 작업에서 자주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Ai Hub 데이터 중 번역 병렬 말뭉치가 있다. 이런 병렬 말뭉치 구축에 사용되는 원문은 문법, 맞춤법, 용어 선택 등이 고려되지 않은 원천 데이터(raw data)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이런 원문을 바로 기계번역기에 투입하면 기계번역기의 품질이 매우 낮게 나타나기에 이후 번역문 데이터 수정 및 정제가 매우 복잡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 정제를 필수적으로 진행한다. 주로 언어적 차원, 문법적 차원, 용어 적절성 차원에서 정제가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지침은 원문 특성에 맞추어서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이러한 지침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언어적 차원:

- 특정 언어 고유의 언어 구성요소를 일반적인 단어로 변경한다.
- 원문 내 오타자 및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는다.

문법적 차원:

- 원문의 문법체계에 맞는 평서문 및 능동문 형태로 변경한다.
- 여러 시제 및 복잡한 문법 요소가 혼재하는 문장을 여러 단일 문장으로 분할한다.

용어 적절성 차원:

-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변경한다.
- 다의어를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유의어로 변경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원문 정제 작업은 본고에서 정리한 프리에디팅과 일맥상통한 모습을 보인다. 원문을 수정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면서 사용되는 지침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꼭 기계번역이 아니라 인간 번역사들이 원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초벌 번역 전에 임시로 원문을 수정하는 행위까지 모두 적용이 되는 더 넓은 의미를 지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형태로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통제 언어(Controlled Language)가 있다. 통제 언어는 제한된 문장 길이로 특정한 문법 및 스타일, 한정된 단어, 한정사, 능동형 등의 형태로 텍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의미한다(Cronin, 2013). 다시 말하자면 처음부터 원문이 복잡한 문법이나 긴 문장 형태가 아니라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쉽고 짧은 문장의 형태를 띠도록 작성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통제 언어의 주요 목적은 번역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원문을 비슷한 형태로 작성하여 여러 번 번역하는 수고를 줄이는 것이다. 통제 언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고 평이하게 작성된 원문은 자연스럽게 기계번역에서 높은 품질을 내기 시작했고, 이에 다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통제언어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옛날부터 자사 기계번역의 품질을 높여 전체적인 번역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통제언어 규칙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Aikawa 외 4명, 2007). 이에 더해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는 과거부터 자사 매뉴얼의 번역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 서비스 통제언어(Controlled Automotive Service Language: CASL)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Means, L. & Godden, K. 1997). CASL은 쉽게 읽히고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번역이 용이한 형태의 글쓰기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문법적 차원과 통사적 차원의 지침을 제공한다.

통제 언어는 원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 작성 단계에서부터 번역의 수월성을 염두에 두고 원문을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프리에디팅과 다소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지향점이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며 쉬운 글쓰기라는 점과 이를 위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프리에디팅과 일맥상통하다. 이미 다양한 기업에서 자사만의 지침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에 따라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프리에디팅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세 번째 형태로는 테크니컬 라이팅(Technical Writing)이 있다. 테크니컬 라이팅은 주로 제품설명서나 소프트웨어 사용법과 같은 기술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다. 사용자들에게 제품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기술문서의 특성에

맞추어야 하는 테크니컬 라이팅은 명확하고 명료한 표현으로 정확한 정보를 일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쓰기 방법이다.

테크니컬 라이팅 또한 앞에서 설명한 번역의 용이함을 확보하기 위해 평이하게 텍스트를 작성하는 통제언어와 개념이 비슷하지만, 처음부터 설정된 텍스트가 번역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독자인 일반 소비자나 사용자의 활용도 또한 생각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테크니컬 라이팅을 통해 작성된 텍스트는 의미가 명확하고 표현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번역하기도 쉽다. 대부분의 기술문서는 다국어 번역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테크니컬 라이팅을 통해 자연스럽게 번역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에 테크니컬 라이터에 대한 수요는 로컬리제이션 및 언어서비스 기업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며, 원문 작성과 번역까지 한 번에 진행가능한 테크니컬 라이팅은 계속해서 번역의 한 형태로 부상하고 있다.

원문을 처음부터 번역이 편하고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게 작성하고, 이를 위한 지침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면 테크니컬 라이팅도 프리에디팅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미 작성된 원문을 수정하는 프리에디팅보다는 조금 더 넓은 작업이지만, 최종 목적과 효과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비슷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원문 정제, 통제언어, 테크니컬 라이팅 작업 형태의 공통점은 원문을 특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작성 및 수정하여 번역을 용이하게 하고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이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한 번역 프로세스 안에서 세 가지 형태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계번역을 사용하기 위해 중간 과정에 프리에디팅 및 포스트에디팅 과정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다. 전체적인 번역 실무 프로세스에서 보았을 때, 원문을 수정하는 프리에디팅은 여러 형태로 다양한 작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프리에디팅을 제대로 정의하고 하나의 작업으로서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작업 형태에 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4. 결론

지금까지 활용도가 높아진 기계번역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프리에디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계번역을 진행하기 전에 원문을 수정하여 최

중 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리에디팅은 포스트에디팅과 더불어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서 새로운 번역 방식의 일부로 주목받고 있다. 학계에서는 프리에디팅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기법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번역 프로세스에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더욱 발전된 기계번역 엔진과 초거대 언어 인공지능까지 등장하면서 기술의 발전을 역행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며, 적응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는 것이 우선이다. 원문을 수정하여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번역 프로세스의 효율을 올린다는 관점에서 프리에디팅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프리에디팅의 효율성과 기법에 대해서 포괄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실행 단위의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프리에디팅과 포스트에디팅을 아우르는 연구, 텍스트 주제 및 형태별 프리에디팅 기법, 프리에디팅 기법과 기존 윤문 및 감수 기법의 비교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실무에서 진행되는 통계언어와 테크니컬 라이팅을 번역학 관점에서 분석하고 논의하는 연구 또한 충분히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실무에서도 지침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프리에디팅에 대해 자세하게 정의하고 학계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참여하여 포스트에디팅처럼 하나의 작업 프로세스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식재료를 손질하고 사용하기 좋게 다듬어야 요리 과정도 편하고 마지막 음식의 형태가 예쁘게 나오는 것처럼 번역에 있어서도 원문을 손질하는 프리에디팅 또한 큰 중요성을 가진다. 지금까지 포스트에디팅이라는 음식 플레이팅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첫 준비 과정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 김순미, 신호섭, 이준호 (2019) 「번역학계와 언어서비스업체(LSP)간 산학협력연구: ‘포스트에디팅 생산성’과 ‘기계번역 엔진 성능 비교」, 『번역학연구』 20(1): 41-76.
- 이성화, 김세현 (2018) 「영-한 및 한-영 기계번역 품질향상을 위한 프리에디팅 기법 제안」, 『번역학연구』 19(5): 121-154.
- 송상헌 (2020) 「기계 번역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번역·언어·기술』 1: 5-23.
- 신지선 (2017) 「테크놀로지 패러다임에서의 번역능력 재조명」, 『통번역학연구』 21(4): 51-71.

- 신지선 (2020)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해외 연구 동향」, 『번역학연구』 21(4): 87-114.
- 이준호 (2018)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위한 포스트에디팅과 인간번역의 차이 연구」, 『통역과 번역』 20(1): 73-96.
- 이준호 (2021) 「영한 포스트에디팅 생산성에 대한 고찰 - 시간적 노력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5(2): 55-83.
- 이준호, 김순미 (2022) 「풀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고찰-풀 포스트에디팅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5): 119-146.
- 진용주, 서보현, 김순영 (2018) 「프리에디팅(pre-editing)이 기계번역 품질에 미치는 영향 고찰」, 『통번역학연구』 22(3): 27-63.
- 한현희 (2019), 「한노 기계번역의 오류 유형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한 프리에디팅(pre-editing) 규칙 제안」, 『통번역학연구』 23(3): 291-327.
- Aikawa, T., Lee, S., King, R., Corston-Oliver, M., & Lozano, C. (2007). Impact of controlled language on translation quality and post-editing in a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environment. In Proceedings of Machine Translation Summit XI.
- Lee. A. (2023), What Are Large Language Models Used For?, Nvidia official website.
<https://blogs.nvidia.com/blog/2023/01/26/what-are-large-language-models-used-for/>
- Brown, T., Mann, B., Ryder, N., Subbiah, M., Kaplan, J. D., Dhariwal, P., & Amodei, D. (2020).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3: 1877-1901.
- Cronin, M. (2013). Translation in the Digital Age, Routledge: New York.
- Feifei, F., Rong, C., & Xiao, W. (2022). A Study of Pre-editing Methods at the Lexical Level in the Process of Machine Translation. Arab World English Journal For Translation and Literary Studies, 6: 54-69.
- Garcia. I. (2012), A brief history of postediting and of research on postediting, Revista AngloSaxonica 3(3): 291-310.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2017). Translation services – Post-editing of machine translation output – Requirements (ISO 18587: 2017).
<https://www.iso.org/standard/62970.html>
- Liang, Y., & Han, W. (2022). Source text pre-editing versus target text post-editing in using Google Translate to provide health services to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lients. *Science, Engineering and Health Studies* 16: 22050009
- Means, L. & Godden, K. (1997). The Controlled Automotive Service Language (CASL) Project. In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Workshop on Controlled Language Applications, CLAW-96*. Belgium, Leuven (pp. 106 - 114).

서보현

Lionbridge Localization Project Manager

bhyun412@gmail.com

관심분야: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번역품질 평가

김순영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kim@dongguk.edu

관심분야: 번역교육, 번역문체

『번역·언어·기술』 편집규정

2019년 11월 1일 제정
2021년 9월 30일 수정

제1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내외로 편성한다.
2. 편집위원장과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기능)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번역·언어·기술(TransLinguaTech)』의 논문 투고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투고 규정

제4조(자격)

논문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번역과 언어 및 관련 기술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 박사

과정 이상의 전공자나 연구자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생의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편집위원장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제5조(대상)

본 학술지의 게재 대상은 번역과 언어, 또는 번역기술과 관련된 연구논문으로 하되, 인접학문의 이론을 접목한 통역번역 관련 연구논문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학술적 성격의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의 발표문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방법)

1. 논문 투고는 마감일(12월31일)까지 온라인 논문투고사이트(<http://submissiontrans.donggu.k.edu/Login>)로 한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2. 투고 시 투고자의 이름이나 소속 신분을 알 수 있는 사항이 삭제된 파일과 포함된 파일 각 1부씩을 온라인 논문투고사이트에 업로드한다.
3. 접수 시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제7조(논문저자 윤리)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발표 예정이어서는 안 된다.

제8조(원고 분량)

학술논문은 A4용지 20페이지 내외로 하고 A4 용지 30페이지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단, 논문 완성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 검토 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원고작성방법)

원고는 아래한글 및 MS워드 작성하여야 하며, 학술지 논문작성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게재여부)

기고문의 채택 여부, 게재 순서 및 체재에 관한 사항은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심사 규정

제11조(절차)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전문가를 선정 하되 필요한 경우 비회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심사호지의 투고자는 제외한다.
2. 투고된 논문은 각 3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의뢰되며,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 사서’에 기재된 심사기준을 근거로 심사하고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심사 의뢰 시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및 기타 정보는 공 개하지 않는다.
4.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정하고 심사결과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저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제12조(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한다.

-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10점)
- 2) 논문 주제의 창의성(10점)
- 3) 연구 방법의 적절성(10점)
- 4) 논리적 구성 및 전개(10점)
- 5) 내용의 완결성 및 타당성(10점)
- 6)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10점)
- 7)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10점)
- 8) 논문초록의 적합성(10점)
- 9) 기타 편집규정 준수 여부(10점)
-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10점)

제13조(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이 내린 심사결과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정하여 온라인으로 통보한다.

- 90점 이상: 게재가
- 89~75점: 수정 후 게재
- 60~74점: 수정 후 재심사

- 59절 이하: 게재 불가

제14조(심사판정 후 논문수정)

1.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수정한 원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반드시 ‘수정제의서’의 수정 요청 사항을 참고해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 요청 사항 반영 결과를 별도로 정리한 ‘수정이행서’를 수정한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 담당 편집위원의 확인을 받는다. 심사위원의 수정 요청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근거를 밝힌 ‘반론서’를 제출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재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이 때 투고자는 ‘수정제의서’의 수정 요청 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별도로 정리한 ‘수정이행서’를 수정한 원고와 함께 제출하고 재심사 판정을 부여한 심사위원들은 해당 ‘수정이행서’와 수정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이의신청)

1. 심사의 결과를 통보 받은 투고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에 해당 사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2. 해당 사유서를 접수한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을 출석시켜 그 내용을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3. 소명 결과 편집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게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원고에 한하여 새로운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재심하며 해당 절차와 결과의 처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4.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편집 및 심사, 발행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하여 문서로 작성, 보관한다.

제4장 발행 규정

제9조(명칭)

이 규정은 번역학연구소 학술지 『번역·언어·기술(TransLinguaTech)』 발행규정이라 한다.

제10조(목적)

이 규정은 번역학연구소 학술지 『번역·언어·기술(TransLinguaTech)』의 발행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발행시기)

매년 1회 2월 28일에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늘린다.

제12조(발행인)

학술지 『번역·언어·기술(TransLinguaTech)』의 발행인은 번역학연구소장 명의로 한다.

제13조(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와 연구소 공동 소유로 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동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자와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형식)

학술지의 형식은 다음을 따른다.

1. 학술지 앞면 표지에 한글과 영문으로 제목을 명기하고, 발행호수, 발행처명 및 로고, 발행년월, ISSN 번호를 명기한다.
2. 학술지 뒷면 표지에는 영문으로 발행처명 및 로고를 명기한다.
3. 학술지에는 목차, 주제어 목록, 학술논문, 논문규정(편집위원회규정, 투고규정, 심사규정, 발행규정, 연구윤리규정, 기타규정), 편집위원명단 등을 수록한다.
4. 수록 논문 마지막 페이지 좌측 하단에 논문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을 밝힌다.

제5장 기타 규정

제15조(책임)

1. 저자의 책임: 원고 작성 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저자가 책임을 진다. 논문심사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자의 인적 정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2. 심사자의 책임: 논문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 판단 및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며, 결함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필요할 경우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회 심사자는 원고에 대한 저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 전체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심사평가 시 저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게재가 확정되거나 게재된 이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적이 있거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 편집위원회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2년 동안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역·언어·기술』 원고 작성 및 투고 방법

2019년 11월 1일 제정

2021년 9월 30일 수정

1. 원고: 아래한글로 작성한다.
2. 언어: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한다.
3. 논문길이: 20매 내외, 최대 30매를 넘지 않도록 하되, 논문 완성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위 검토 후 예외를 적용한다.
4. 영문초록: 서론 앞에 15행 내외로 작성하고 초록 하단에 키워드를 영어와 한국어로 각각 5개씩 표기한다.
5. 논문의 서식:
 - ① 편집 용지 — 용지종류(사용자정의, 폭 151, 길이 224)
 - ② 글자 모양(본문기준) — 한글은 신명신명조 10(줄간격 162%), 장평: 93(본문기준), 자간: -8(본문기준)
 - ③ 여백 주기 — 위쪽: 15.0, 아래쪽: 15.0, 왼쪽: 15.0, 오른쪽: 15.0, 머리말: 12.0, 꼬리말: 12.0
 - ④ 논문 제목은 신명태명조 14(가운데 정렬)로 하고 한줄 띄운 뒤 필자명(신명조 11, 오른쪽 정렬, 글자 당 간격 1 space)을 기입한다.
 - ⑤ 기타 글자 크기 — 소제목: 신명태명조 11, 표와 그림의 제목: 중고딕 7.5, 표 안의 글자: 신명신명조 9, 각주: 신명신명조 9(줄간격 145%), 직접인용: 신명신명조 9(줄간격 150%, 좌우여백 15.0pt)
 - ⑥ 영문초록 — Times New Roman 10(줄간격 162%), 제목은 이탤릭체, 양쪽맞춤
 - ⑦ 참고문헌 — 국문서적은 신명신명조 10(줄간격 162%), 영문서적은 Times New Roman 11(줄간격 162%)
 - ⑧ 자세한 서식규정은 번역학연구소가 제공하는 논문서식(hwp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6. 각주: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는 외에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면 하단에 단다.

7. 공동저자 표기: 2인 이상이 집필한 논문의 경우, 제1 저자를 앞에 쓰고 나머지 필자를 ‘가나다’ 또는 ‘ABC’ 순으로 기재하며, 제1 저자가 없는 공동 집필의 경우에는 저자들을 ‘가나다’ 또는 ‘ABC’ 순으로 기재한다.
8. 본문에 언급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한다. 참고문헌은 국내 참고문헌을 먼저 기재하고 외국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참고문헌 예시>

- 김순영, 이경희 (2012) 「 「대성당」 번역본의 문체적 특성 고찰 」, 『번역학연구』 13(1): 33-58.
- 조의연 (편저) (2014) 『번역문체론』, 서울: 한국문화사.
- Davis, R. C., & Schleifer, R. (Eds.). (1998). *Contemporary literacy criticism: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New York: Longman.
- Grauberg, W. (1989). Proverbs and idioms: Mirrors of national experience?. In G. James (Ed.), *Lexicographers and their works* (pp. 94-99). Exeter: University of Exeter.
- Hatim, B., & Mason, I.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Longman.
- Al-Jubouri, A., & Knowles, F. (1988, March 3-4). A computer-assisted study of cohesion based on English and Arabic corpora: An interim report. In *Proceedings of the 12th International ALLC Congress*. The 12th International ALLC Congress, Geneva (pp. 98-110). ALLC.
9. 이상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을 따른다.
 10. 투고문 첫 페이지에는 제목, 저자명과 소속, 영문 저자명, 영문 제목, 영문 초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1. 투고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저자명과 소속, 이메일 연락처와 관심분야를 기재한다.
 12. 투고는 마감일(매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논문투고사이트(<http://submissiontrans.dongguk.edu/>)로 한다.
 13. 심사자의 의견 및 수정에 관한 제안을 투고자에게 보내면, 투고자가 마감기한까지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게재 가능하다.

『번역·언어·기술』 논문 작성 양식

2019년 11월 1일 제정

번역 및 언어현상이나 관련 기술 연구

[신명조 14, 가운데 정렬]

[신명조 11, 오른쪽 정렬, 글자당 간격 1space] 김 동 국

[신명조 10, 오른쪽 정렬](동국대)

[한 줄 띄기, 줄간격 162%]

Kim, Dongguk. *A Study on the Translation, Language* (Times New Roman 10, 이탤릭체)

This study explores the ways...(Times New Roman 10, 162%.)

[한 줄 띄기, 줄간격 162%, 휴먼고딕 9][주제어 5개 제시]

▶ Key Words: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language,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 키워드: 한국 문학, 번역, 언어, 기술, 인공지능

[초록은 영어로 작성한다. 길이는 15행 내외로 하며 초록 하단에 한국어와 영어 주제어(Key Words)를 각각 5개씩 제시한다.]

[두 줄 띄기, 줄간격 162%]

1. 서론

[신명 태명조 11, 가운데 정렬]

[한 줄 띄기, 줄간격 162%]

본 연구는 번역, 언어 또는 관련 기술에 대한... [신명 신명조 10, 줄간격 162%, 들여쓰기 15]

[두 줄 띄기, 줄간격 162%]

2. 산업 번역

[신명 태명조 11, 가운데 정렬]

[한 줄 띄기, 줄간격 162%]

2.1 인공지능번역 [신명태고딕 10, 들여쓰기 15]

실제로 기계 번역, 즉 AI 번역의 오류는 빈번하다. 아직 AI가 문법은 물론 문장의 맥락을 읽어낼 능력이 없을 뿐더러 글의 종류에 따라 정확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2.1.1 번역가 역할 [신명 신명조 10, 들여쓰기 없음]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번역가의 설 자리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 잇따르고 있다.

미래의 번역 분야 종사자는 결국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초별 기계번역 뒤 감수 작업)을 하는 이들과 전문 번역가로 나뉘 겠습니다.....

[직접인용, 글자크기 9, 줄간격 150%, 왼쪽/오른쪽 여백 15.0pt]

<표 1> 구글 번역과 네이버 번역 비교

[영어의 경우 ‘Table 1’으로 표기 / 고딕 7.5, 가운데 정렬]

2) 국민일보에 따르면, “AI 번역도 결국 인간 언어능력... 번역가 역할 달라질 것”....

[글자모양 본문과 동일, 글자크기 9, 줄간격 145%]

구글 번역	네이버 번역

[표 안은 신명신명조 9, 줄간격 130%]

[한 줄 띄기, 줄간격 162%]

<그림 1> 인공지능 번역과 번역가의 역할
[영어의 경우 'Figure 1'으로 표기 / 고딕 7.5, 가운데 정렬]

[두 줄 띄기, 줄간격 162%]

참고문헌

[신명 태명조 11, 가운데 정렬](영어의 경우 'References'로 표기)

[신명 신명조 10 /Times New Roman 11, 줄간격 162%, 내어쓰기 25pt]

김순영, 이경희 (2012) 「 「대성당」 번역본의 문체적 특성 고찰 」, 『번역학연구』 13(1): 33-58.

조의연 (편저) (2014) 『번역문체론』, 서울: 한국문화사.

Davis, R. C., & Schleifer, R. (Eds.). (1998). Contemporary literacy criticism: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New York: Longman.

Grauberg, W. (1989). Proverbs and idioms: Mirrors of national experience?. In G. James (Ed.), Lexicographers and their works (pp. 94-99). Exeter: University of Exeter.

Hatim, B., & Mason, I.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Longman.

Al-Jubouri, A., & Knowles, F. (1988, March 3-4). A computer-assisted study of cohesion based on English and Arabic corpora: An interim report. In Proceedings of the 12th International ALLC Congress. The 12th International ALLC Congress, Geneva (pp. 98-110). ALLC.

[한국어 문헌을 앞에 표기하고 외국어 문헌을 뒤에 표기한다.]

[두 줄 띄기, 줄간격 162%]

김동국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kim@dongguk.edu

관심분야:

논문투고일: 2022년 월 일

심사완료일: 2023년 월 일

게재확정일: 2023년 월 일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2019년 11월 1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 준수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이하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기관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

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⑥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⑦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 및 본 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재심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 중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 및 위원장)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고 동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단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

조사나 검증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위촉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접수)

부정행위에 대해 연구소장에게 실명으로 제보된 건만 접수한다.

제10조(예비조사)

1. 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연구소장이 담당하되, 예비조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 ③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관련 증거 자료
 - ⑤ 제보 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제11조(본조사)

1.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조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3. 본 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 정보(익명 제보인 경우 예외)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 ③ 해당 연구 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⑥ 본 조사위원회 명단
4.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본 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6.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 시 연구소장에게 징계 및 제재 조치를 권고한다. 연구윤리 위반이 발각될 시 해당 저자는 5년 동안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동 기간 동안 투고 논문 심사도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 시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시 연구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4. 1항, 3항의 징계 및 상당한 제재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의 원칙

제15조(절차적 권리 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제16조(출석 및 자료요구)

1.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의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의 유지 등)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관계 위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동일하다.

제18조(제보자 보호)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위원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 년 제 4 권

발행인: 김 순 영

발행일: 2023 년 2 월 28 일

발행처: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 길 30
동국대학교 만해관 355 호

전화: 02-2260-8657

이메일: trans@dongguk.edu

홈페이지: <https://trans.dongguk.edu/>
